



탱커 스팟운임 신고가 경신, Karpowership의 FSRU 개조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이준범 junebum34@daolfn.com

코멘터리 of 조선

▶ 울트라막스 컨선 5주 연속 하락, 중고선가지수는 또 1P 상승

① LNG선은 246.0백만달러로 5주 연속 하락 후 보합을 기록했지만, 울트라막스 컨선이 245백만달러(-2백만달러)로 5주 연속 하락합니다. 신고선가지수는 0.02P 하락합니다.

② 탱커 운임이 또 급등했지만, 지난주 탱커 중고선가는 보합을 기록합니다. 중고선가지수는 1P 올라 224P가 됩니다.

▶ 탱커 운임 신고가

- ③ VLCC 운임이 90만달러/일을 초과(TCE 937,767달러/일 보고)하며 초 강세를 이어갑니다.
- ④ 그러나 용선료 폭등으로 트레이더들은 VLCC보다 중소형 탱커로 선회 중입니다. VLCC 성악이 최장단계에서 무산되고, 아프리카막스 탱커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 ⑤ 지난주 그리스 Carlova가 일본 Imabari SB에 아프리카막스 탱커 2척을 발주합니다.

▶ LNG 연말까지

- ⑥ 9월까지 73척의 LNG선이 발주되었습니다. 3분기 14척 중 중국이 8척이나 수주해갔습니다. 한국은 K Line 2척으로 4분기 수주했지만, 협상건들 다수가 2027년으로 미연 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도 제시됩니다. 한국에게는 TotalEnergies의 Mozambique 17척 재발주가 중요합니다.
- ⑦ QatarEnergy는 NFE 1번을 11월에 준비 완료 후 2027년부터 본격 수출을 시작합니다. 그전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릴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 ⑧ 9월 호르무즈 해협 LNG선 통항 횟수는 21건으로 중동 전쟁 이후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 Floating LNG, 신시장

- ⑨ Golar가 4번째 개조 FLNG를 위한 177k-CBM(2013년 건조) 스텐터빈선을 매입합니다. Mark II 설계(3.5-MTPA)를 중국 CIMC Raffles에서 개조 예정이며, 2029년 인도물의 공사 가격은 2.45십억달러입니다.
- 삼성중공업도 연말까지 2건의 FLNG의 본 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 ⑩ Seatrrium이 2건의 FSRU 개조 계약을 따냅니다. 미국 Exceleerate Energy와 1+1척을, 그리고 Karpowership과 체결한 9척(FSRU 3척, 파워십 6척) 중 2번째 옵션 행사로 FSRU를 개조합니다. Karpowership의 공격적인 FSRU, 파워십 투자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짐작해 봅니다.

한국 조선업에 피크아웃을 몰리칠 새로운 시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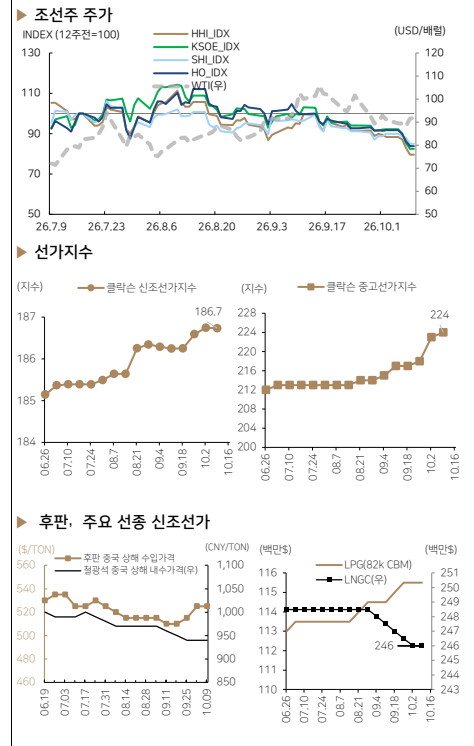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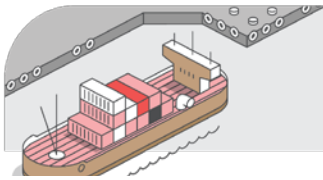


Fig. 튀르키예 Karpowership, FSRU 3척 + 파워십 4척 + 옵션 2척 프로그램 진행 중

일자	이벤트	세부
2018	Seatrrium-Karpowership FSRU 개조 협력 개시	LNGT 시리즈 7척 프로그램 (Admiralty Yard)
2025.08.14	2번째 LOI 체결 (싱가포르)	FSRU 개조 3척 + Powership 통합 4척 + 옵션 2척 = 최대 9척
2026.03.03	본계약 #1: LNGT Karadeniz (통산 8번째)	Karpowership 최초 고용량 FSRU, - 재기화 최대 600 mmscd
2026.07.08	1호선 Karadeniz 강제절단 착공	Tuas Boulevard Yard, LP/MP/HP 송출 시스템
2026.09.23	LNGT Türkiye 명명·출항	기존 7척 프로그램 종료 (Admiralty Yard 마지막 프로젝트)
2026.09.30	Kinetics, LNG선 Arctic Voyager 인수 발표	FSRU 개조용
2026.10.05	본계약 #2: LNGT Akdeniz (통산 9번째)	신세대 FSRU 시리즈 2번선, - 재기화 600 mmscd, 1Q27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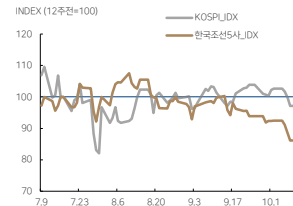
주시 뉴스

주주, 1주주	주주, 1주주
선가 & 수주 ▲ 울트라막스 컨선 5주 연속 하락, 중고선가지수는 또 1P 상승 ▲ 24년 선형 VLCC 73백만달러 매각. 2025년 초 대비 3배 상승 그린십 ▲ HD현대중공업, SMR 추진 사용화 위해 11개 기관과 사업 착수 ▲ 2026년 1~9월 LNG선 발주 73척 달성 ▲ QatarEnergy의 NFE 1번 train 곧 가동 ▲ 호르무즈 해협 LNG선 21건으로, 전쟁 이후 최고치 ▲ BW LNG와 Marubeni, 스텐터빈 LNG선 폐선 가스선 ▲ 말련 Petronas CEO, 중동과 에너지 위기는 2027년까지 혼란 지속 전망 ▲ Premier Alliance 수매즈 운하 및 홍해 항로 복귀를 결정 컨테이너선 ▲ 그리스 Carlova, 일본 이마바리에 아프리카막스 탱커 2척 발주 ▲ VLCC TEC가 937,767달러/일로 사상 최고치 경신 ▲ VLCC 운임 급등으로, 중소형 탱커 수요 증가 해양/디펜스 ▲ Golar LNG, 4번째 FLNG 개조할 LNG선 인수 ▲ Seatrrium은 Exceleerate Energy로부터 LNG-FSRU 개조 2건 수주 ▲ 싱가포르 Seatrrium이 Karpowership의 FSRU 개조 수주, 9척 LOI 중 2번째 계약 기타 ▲ HD현대, 이상군 HD현대중공업 부회장을 조선 총괄 부회장으로 선임	수주, 10월1주주 ▲ 신고선가지수 3주 연속 상승, 중고선가지수 5P나 오른 223P N/A ▲ 삼성중공업의 LNG선 2척 수주 공시 발주처는 일본 K Line ▲ 한화오션, Zodiac의 LNG선 시장 데뷔 2척 수주 ▲ 한국의 신규 투자 합의로 오랜 기간 논의된 Alaska LNG 프로젝트 가시화 양상 ▲ Shell 컨소시엄, 'LNG Canada' 2단계 FID 확정 및 EPC-파이프라인 확장 본격화 ▲ JP Morgan, 삼성중공업에 신고선 추가 발주하여 잔고 확대 N/A ▲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 여파로 VLCC 스팟 운임 역대 최고치 재경신 ▲ Clarkson Research, 유조선 선주 현황세 2027년까지 지속 가동성 제기 ▲ Wood Mackenzie, 공급 업체 부족 속 FLNG 시장 신규 진입 기회 확대 전망 ▲ New Fortress Energy(NFE), FLNG 개조용 원통형 시추 리그선 2척 4년 만에 폐선 매각 ▲ Worley, 인니 Inpex Abadi LNG의 해저-파이프라인 2개 패키지 FEED 완료 ▲ HD현대중공업, CldN으로부터 RoRo 2척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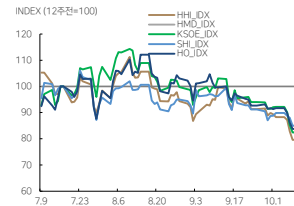


Peer Group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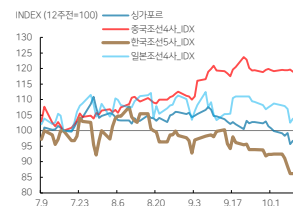
▶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 한국 조선5사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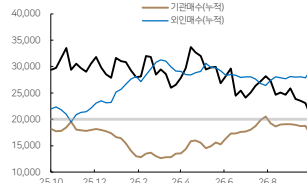


▶ 한/중/일/상 조선주 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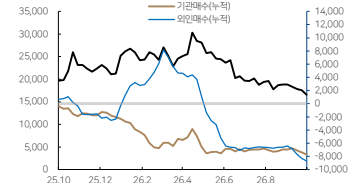


조선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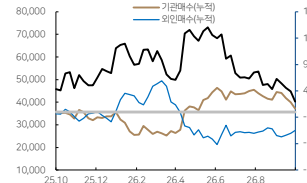
HD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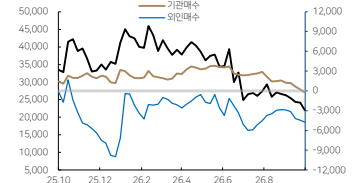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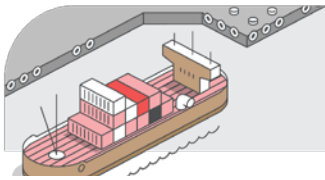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지수	WTI		0.8%	-4.4%	33.7%		56%	5%
	CRB INDEX		1.1%	-2.0%	17.5%		42%	46%
조선사								
한국조선	HD한국조선해양	15,373	-10.6%	-17.3%	-19.4%		-30%	192%
	HD현대중공업	30,033	-9.9%	-16.3%	-34.1%		-25%	237%
	삼성중공업	12,367	-5.5%	-12.3%	-20.3%		-16%	145%
	한화오션	16,439	-8.6%	-17.3%	-32.7%		-34%	160%
싱가포르	KEPPEL	14,680	-1.7%	-10.8%	-1.1%		16%	63%
	CSSC	43,336	-1.4%	-2.5%	-3.7%		10%	44%
	CSSC OMEC	4,566	-1.0%	-0.2%	-3.0%		4%	19%
	YANGZUJIANG	15,666	1.6%	-0.4%	-43.3%		50%	213%
일본조선	NAMURA SB	2,036	-3.1%	-5.3%	-27.3%		26%	469%
	MITSUBI ES	2,591	-5.1%	-10.3%	-19.8%		-11%	782%
	KAWASAKI HI	12,619	-3.1%	-5.8%	-19.2%		17%	210%
	SUMITOMO HI	4,532	-6.1%	-2.4%	-1.0%		66%	59%
대만조선	CSBC CORP TAIWAN	741	-1.6%	-1.9%	-10.8%		-16%	-11%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기름들								
RIG	TRANSOCEAN	6,154	6.6%		-3.5%	8.9%	79%	29%
	SEADRILL	2,886	5.2%		-3.9%	15.8%	58%	7%
	Valaris	5,808	6.7%		-1.5%	11.0%	79%	14%
	ODFJELL SE-A SHS	1,071	-2.9%		8.0%	23.8%	14%	19%
IOC+	ExxonMobil	700,164	3.0%		2.9%	23.2%	53%	14%
	Shell	286,526	4.1%		4.8%	28.4%	40%	19%
	BP	121,837	5.1%		5.2%	25.5%	39%	7%
	TOTALEnergies	200,501	5.5%		0.4%	17.3%	57%	14%
	Chevron	418,824	2.6%		-0.9%	25.3%	42%	19%
	ENI	85,419	4.2%		5.3%	23.3%	69%	13%
	Equinor	104,394	3.7%		0.6%	31.3%	75%	12%
ENG.	SBM	6,869	3.3%		-1.0%	16.8%	68%	19%
FEED.	TechnipFMC	27,283	1.1%		-10.6%	4.2%	94%	19%
	SAIPEM	10,205	5.7%		4.4%	3.9%	87%	19%
	NOV	6,762	0.9%		-11.8%	5.3%	54%	7%
	MODEC INC	3,693	-1.8%		-10.7%	-8.6%	9%	19%
	WORLEY PARSONS	3,202	-0.7%		-7.2%	-12.4%	-34%	14%

엔진 / 부품								
엔진	WARTSLA	19,440	0.0%	0.1%	-10.1%		12%	180%
한국엔진	한화엔진	2,553	-15.5%	-16.1%	-22.3%		-14%	379%
	STX엔진	616	-9.1%	-15.1%	-27.6%		-46%	63%
	HD현대마린엔진	1,082	-12.8%	-18.5%	-35.3%		-50%	360%
	한진중공업	394	-7.2%	-10.2%	-31.1%		-55%	86%
기자재	한국카본	737	-6.8%	-14.5%	-27.0%		-42%	60%
	동성화인텍	340	-7.1%	-9.6%	-13.7%		-49%	27%
	세진중공업	563	0.9%	-7.0%	-21.0%		-49%	-31%

해운								
해운	MAERSK DCEquity	53,309	2.7%		11.9%	19.0%	107%	19%
	SHIP FINANCE INTL LTD	1,850	-0.8%		6.5%	26.0%	92%	19%
	CLARKSON PLC	2,213	7.5%		8.7%	20.8%	56%	19%
	EURONAV NV	6,605	7.4%		12.4%	41.3%	139%	19%
	FRONTLINE LTD	12,489	6.4%		18.8%	52.7%	147%	19%
	NORDIC AMERICAN TANKERS LTD	1,794	0.6%		16.5%	45.8%	163%	19%
	KNOT OFFSHORE PARTNERS LP	349	-2.8%		-10.4%	3.0%	25%	19%
	BW Offshore	795	4.6%		7.2%	-7.8%	11%	19%
	DORIAN LPG LTD	2,466	0.8%		7.5%	60.1%	120%	19%
	EXMAR NV	1,039	-2.6%		-4.2%	3.6%	12%	19%



다올 선박

2026.10.11 [843호]

DAOL 다올투자증권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실

▼ 신조 수주(외선, 전자공시 등)

△ 그리스 Carlova, 일본 이마바리에 아프리카막스 탱커 2척 발주

- 아래의 탱커 섹션 참고

△ Golar LNG, 4번째 FLNG 개조할 LNG선 인수

- 아래의 해양/디펜스 섹션 참고

△ Seatrrium은 Excelerate Energy로부터 LNG-FSRU 개조 2건 수주

- 아래의 해양/디펜스 섹션 참고

▽ 싱가포르 Seatrrium이 Karpowership의 FSRU 개조 수주. 9척 LOI 중 2번째 계약

- 아래의 해양/디펜스 섹션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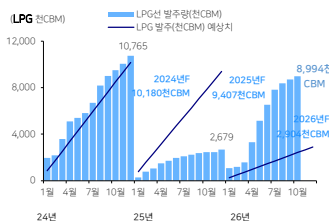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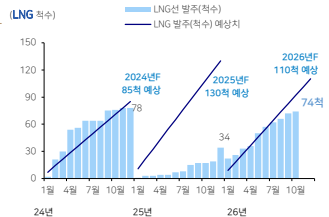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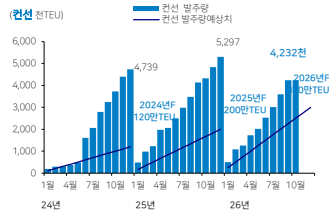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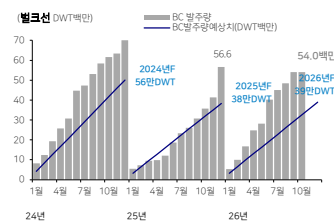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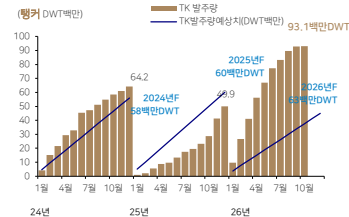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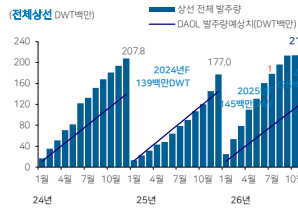
▼ Clarksons 신규 수주 입력 업데이트(한국)

◎이변주 없음

- N/A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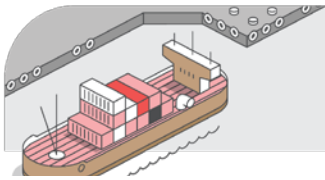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클락슨 신조 발주: 한/중/일

주석: 클락슨 입력 DATA 만 & 해양은 뉴스/공시 기준

	조선사	수주일자	발주처	선종	선형	인도	척수
2026년 10월1주							
대한민국	Samsung HI	26.10.02	Unknown	Unknown	LNG	174k cu.m.	2029 2
		26.09.29	유럽	Global Meridian	LPG	88k cu.m.	2029-2030 2
	Hanwha Ocean	26.09.23	유럽	Zodiac Maritime	LNG	174k cu.m.	2029 2
	Dalian Shipbuilding	26.06.30	중국	COSCO Shipping Dev	BULK	211k DWT	2029-2030 2
				COSCO Shipping Bulk	BULK	211k DWT	2029-2030 6
	Huangpu Wenchong	26.09.29	유럽	Erasmus Corp	CONT	2k TEU	2030 2
		26.09.24	아시아	RCL	CONT	3k TEU	2030 4
	Hudong Zhonghua	26.09.01	유럽	Danaos Corp	CONT	9k TEU	2029 2
	Shanghai Waigaoqiao	26.05.01	중국	TPSH Leasing	TK	300k DWT	2029 1
		26.09.01	아시아	X-Press Feeders	CONT	7k TEU	2029 1
중국	Shanhaiguan SB	26.04.23	유럽	Costamare Shipping	CONT	9k TEU	2028-2030 5
	Qingdao Beihai SB	26.07.31	중국	COSCO Shipping Bulk	BULK	210k DWT	2030 4
	CSSC Tianjin	26.05.30	유럽	Thenamaris	PTK	114k DWT	2029-2030 3
	Damen Changde SY	26.06.01	유럽	Damen Workboats	OFF-기타		2027 2
	Haitong Offshore Eng	26.01.01	중국	Higia Shipping	BULK	64k DWT	2028-2029 2
	Jiangsu Dajin HI	26.01.26	한국	Hana Shpg Co Ltd	OFF-SUPP		2028 1
	Jiangsu New Hantong	26.08.01	아시아	U-Ming Marine	BULK	211k DWT	2030 2
		26.09.29	아프리카	Scorpio Tankers	PTK	114k DWT	2029 2
	Jiangsu Zhenjiang SY	26.07.01	아시아	Eastern Navigation	OFF-SUPP	0k LOA	2028 2
	Taizhou Sanfu	26.09.30	아시아	Precious Shipping	BULK	65k DWT	2030-2031 4
일본	Zhoushan Changhong	26.09.24	아시아	Global Car Carriers	PCTC	9k Cars	2030 2
	Zhuhai Jianglong	26.09.29	Unknown	Unknown	OFF-SUPP	5k DWT	2028 2
	Lianyungang Heitong	26.03.01	중국	Dingyuan Hengqi	CONT	6k TEU	2029 1
				Hainan Shengjie Shpg	CONT	6k Cars	2028 1
	Jiangsu Runyang	26.01.01	중국	Tianjin Hongli Intl	CONT	4k TEU	2028 1
		26.07.11	중국	Zhongnan Shipping	PCTC	6k Cars	2028-2029 4
					PTK	115k DWT	2028-2029 4
	Lianyungang Wuzhou	26.05.31	중국	Chenxin Shipping	PTK	115k DWT	2028-2029 2
	Fujian Mawei SB	26.09.24	아시아	Global Car Carriers	PCTC	9k Cars	2030 2
	Nantong Rainbow	26.01.01	Unknown	Unknown	OFF-SUPP	4k DWT	2027 1
중국		26.09.30	유럽	IWS Fleet	OTHERS		2029-2030 4
	Haidong Shipyard	26.09.25	유럽	Uni-Tankers	PTK	8k DWT	2028-2030 8
	Jiangsu Shiye SB	26.01.01	중국	Guangxi Henglin Intl	CONT	6k TEU	2028 1
	Nantong CIMC SOE	26.08.22	중국	Zhejiang Jiamei Shpg	LPG	35k cu.m.	2029 1
	Hengli SB (Dalian)	26.09.01	유럽	Zodiac Maritime	CONT	6k TEU	2029-2030 4
		26.09.29	아프리카	Scorpio Tankers	TK	306k DWT	2028 2
	CMI (Weihai)	26.08.25	아시아	Eastern Pacific Shpg	PCTC	7k Cars	2030 3
	No.5 Eng CCCC 1st	26.09.25	중국	Nanjing Lanjian	OFF-SUPP		2027 4
	Wuxue Changjiang	26.06.02	중국	Zhoushan Hongxin	CONT	1k TEU	2027 1
	Fukuoka (Nagasaki)	26.01.01	일본	MOL Chemical Tankers	PTK	20k DWT	2028 1
일본	Imabari SB Marugame	26.09.01	유럽	Carlova Maritime	TK	114k DWT	2029-2030 2
	Kyokuyo Shipyard	26.01.01	Unknown	Unknown	LPG	8k cu.m.	2028 2
	Tsuneishi Zosen	26.09.28	유럽	DryDel Shpg	BULK	82k DWT	2029 2
	Fukuoka SB (Fukuoka)	26.01.01	일본	MOL Chemical Tankers	PTK	15k DWT	2028 1
		26.09.01	Unknown	Unknown	PTK	16k DWT	2028 1
2026년 10월2주							
중국	GSI Nansha	26.10.07	유럽	Top Ships	PTK	47k DWT	2029-2030 4
	DSOC	26.09.30	유럽	Union Maritime	PTK	24k DWT	2028 2
중국	New Dayang SB	26.09.30	아시아	U-Ming Marine	BULK	64k DWT	2029-2030 4
	Taizhou Maple Leaf	26.04.01	아시아	Pristine Marine	TK	8k DWT	2028 2
	Yantai CIMC Raffles	26.10.01	유럽	NOCC	PCTC	7k Cars	2030 2
	Zhuhai Jianglong	26.10.01	Unknown	Unknown	OFF-기타	#VALUE!	2028 1
	COSCO HI (Zhoushan)	26.09.04	유럽	Almi Marine Mgmt	BULK	64k DWT	2030 3
	Jiangsu Hongfu SB	26.03.01	중국	Hainan Shengbo	CONT	3k TEU	2028 1
	Hengli SB (Dalian)	26.09.30	유럽	Union Maritime	LPG	88k cu.m.	2029 2
	New Jiangzhou SB	26.05.01	아시아	Mokara Shipping	PTK	8k DWT	2027-2028 2
	Yangzi Hongyuan SB	26.06.30	유럽	Union Maritime	LPG	88k cu.m.	2029-2030 2



선가, 실적, 생산능력

▲ 울트라막스 컨선 5주 연속 하락, 중고선가지수는 또 1P 상승

LNG선이 5주 연속 하락을 마치고 246백만달러 제자리였지만, 울트라막스 컨테이너선이 5주 연속 하락해 245백만달러를 기록. 신조선가지수는 186.73P로 0.2P 하락 중고선가지수는 또 1P 오히려 224P를 기록. 5주 연속 급등하던 탱커는 보합이었지만 케이프 벌크가 상승

▲ 24년 선형 VLCC 73백만달러 매각, 2025년 초 대비 3배 상승

수요 급증으로 노후 VLCC 중심의 고가 매매 계약이 잇따르며 노령 선박 가치 급등
24년 선형의 307k-DWT Vieira(2002년 한국 건조)가 75백만달러에 매각되며 2025년 초 대비 3배 가까이 상승
VesselsValue 기준 해당 선박 평가 가치는 2025년 1월 27백만달러에서 현재 72백만달러로 상승
Signal Ocean에 따르면 5년 선형 VLCC-수에즈막스는 이미 신조선가를 상회해 거래 중
10년 선형 대형 유조선 거래가는 신조 발주 비용(135백만달러) 대비 최소 10백만달러 이상 높은 수준
선가 상승률은 5년 선형 30%, 10년 선형 42%, 15년 선형 61%, 20년 선형 90%로 고선령일수록 가치 상승 폭 심화
Clarksons Securities는 척당 250백만달러 수준의 VLCC 리세일 거래설도 현실성이 있다고 평가
중동발 VLCC 선박 부족이 수에즈막스 수요로 전이되며 타 지역 유조선 가용성도 전반적으로 축소 중임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그린십

▲ HD현대중공업, SMR 추진 사용화 위해 11개 기관과 사업 착수

HD현대중공업이 원자력 추진 상선 상용화를 위해 국내 11개 기관과 해양 SMR 개발·시험·실증 착수
10월 6일 UNIST에서 HD한국조선해양, 한전기술, 현대건설, KR, 서울대, KAIST 등 12개 기관 참여 'SMR 해양 기술 실증 센터' 출범 협약 체결
연구 인프라 공유를 통한 중박 투자 방지 및 해양 환경 적용 핵심 기술 개발, 정부 대형 R&D 기획 병행 추진
현대글로벌비스의 SMR 추진 PCTC 프로젝트 관련 Lloyd's Register로부터 MSR 적용 개념 기본승인(AIP) 획득 완료
HD현대그룹은 15k-TEU MSR 추진 컨테이너선을 2030년까지 개발 완료할 목표이며, ABS와 16k-TEU급 JDA도 체결할
해양에너지사업본부장은 실증 센터가 조선·원자력 산업 간 인프라를 연결하는 협력 거점이 될 것이라 밝힘

▲ 미국 LGL과 현대글로벌비스 SMR 추진 PCTC MOU 체결

미국 LGL과 현대글로벌비스가 원자력 추진 자동차운반선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재급유 없이 장기 무탄소 운항이 가능한 해양 SMR 기술의 부상 반영
양사는 소형 원자로 탑재 PCTC의 상업적·기술적·규제적 타당성 공동 평가 착수
초기 검토 대상은 한-미 노선 투입용 선박의 개발, 건조, 운항 방안
LGL은 미 서안 중심의 현지 규제 및 운영 환경 평가 담당
현대글로벌비스는 한국 측 제반 여건 평가 총괄
선박 건조 가능성, 조선소 선정, 탑재 기구 및 선급 요건 검토 병행 함의
미 정부의 국제 선대 경쟁력 제고 정책 및 한국의 150십억달러 규모 대미 해양 투자가 배경으로 작용
한-미 노선 타당성 입증 시 타 무역 항로의 확장 모색 방침
현대글로벌비스는 6월 Lloyd's Register로부터 원자력 추진 PCTC 기본승인(AIP) 획득 완료
2045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추진 보조 기술의 상업적 타당성을 지속 검증할 계획임

▲ 싱가포르 SLNG, LNG 병커링 인프라 2028년 하반기 완공

Singapore LNG(SLNG), 병커링 재선적 및 소형 선박 전담 3번째 제티(Jetty 3) 착공식 개최
Jetty 3는 5k~80k-CBM 규모 선박을 수용하며 2028년 하반기 완공 예정
완공 시 연간 약 2MTPA의 병커 재선적을 지원하며, 기존 시설과 결합 시 최대 3MTPA까지 처리 능력 확대
현재 SLNG 터미널은 4기 저장 탱크와 2기 제티를 통해 연평균 9MTPA(최대 11MTPA) 공급 능력을 보유
싱가포르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약 50%를 공급 중
SLNG 수입 터미널은 역대 최초로 바이오-LNG 처리에 대한 ISCC EU 인증 획득

▽ EU는 역대 신규 메탄 규제 시행 1년 연기

EU 집행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은 중동 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역대 신규 메탄 규제 시행을 1년 연기한다고 발표
수출업체에 1년의 유예 기간을 제공해 위기 상황에서의 추가 비용 부담 절감 추진
천연가스·원유·석탄 수입을 포괄하는 해당 규제는 당초 2030년 5월까지 4단계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들여
미-이란 분쟁 및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G7의 100백만 배럴 비축유 방출 등 다각도 완화책 병행
당초 2027년 1월 발효 예정이던 2단계(현장 메탄 배출에 대한 제3자 물리적 검증 증빙 제출 의무) 일정도 순연될 전망
독일 장관의 LNG 수입 중단 경고 및 미국·카타르 등 주요 공급국의 법적 불확실성 지적 등 개정 요구가 반영된 조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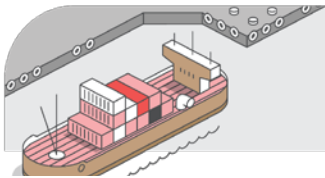
▶ LNGc

▲ 2026년 1~9월 LNG선 발주 73척 달성

높은 신조선가와 스왑 운임 침체(8월 일 20,000달러 미만) 속 이례적 발주세
연내 약 90척 인도 예정으로 단기 시장 하방 압력 지속
장기 수요 전망: 신규 액화 프로젝트 물량 유입에 따라 낙관적
미국 3개 및 캐나다 1개 프로젝트 FID 완료로 총 33.5MTPA 생산능력 추가 확보
3분기에 Zodiac Maritime은 한화오션에 2척 발주하며 LNG선 시장 최초 진입
중국 Hengli Heavy Industry의 2척 수주로 LNG선 건조 가능 중국 조선사는 6개사로 확대
3분기 발주에서 14척(2029년 인도) 중 중국 조선소가 8척 수주. Dynagas는 삼성중공업에 200k-CBM급 4척을 신규 발주
병커링용 2k~20k-CBM급 소형 선박도 올해 11척 발주
10월 초 K Line의 한국 발주 2척(약 495백만달러 추정)으로 4분기 주문 개시
그러나, 선주 협상 다수는 2027년으로 미연 예상되며, TotalEnergies의 Mozambique 17척 슬롯도 되살아나는 중

▲ QatarEnergy의 NFE 1번 train 곧 가동

QatarEnergy가 North Field Expansion(NFE) 프로젝트 산하 1번째 액화 train을 수주일 내 가동할 준비를 마친
해당 시설의 LNG 상업 운전은 11월 준비 완료 후 내년 초 본격 수출로 이어질 전망
카타르는 North Field 3단계 확장을 통해 국가 LNG 수출 용량을 기존 77MTPA에서 142MTPA까지 확대를 추진 중임
NFE는 8MTPA급 대형 train 4기로 구성되어 전체 용량을 110MTPA로 끌어올리는 최대 규모 확장 단계임
지난 3월 Ras Laffan 시설 미사일 피격으로 2기 train(12.8MTPA, 전체 용량의 17%)이 파고되며 불가항력(force majeure)이 선언됨
피격에 따른 연간 매출 손실은 약 20십억달러에 달하며 복구에는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축으로 기존 설비의 절반 미만만 수출 중이어서 신규 가동의 단기 공급 효과는 제한적
카타르 LNG 수출 회복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직결되며, 정상화 시 1번째 train 가동만으로 피격 상실 용량의 약 60%를 대체 가능
이를 통해 카타르 LNG 용량은 전전(戰前) 수준에 근접한 약 72MTPA까지 회복될 전망
분쟁으로 리스크 프로파일은 변화했으나 정세 안정 시 글로벌 최상위 공급국 입지를 되찾을 경쟁력은 유지 중으로 분석됨
☞ 배가 갈 수 있어야지?



△ 호르무즈 해협 LNG선 21건으로, 전쟁 이후 최고치

Kpler에 따르면 9월 호르무즈 해협 LNG선 통항 횟수는 총 21건으로 2월 말 미-이란 분쟁 시작 이래 최고치 기록
수송 물량은 UAE Adnoc과 카타르 QatarEnergy 선적분으로 구성됨
QatarEnergy는 Al Gharrafa, Milaha Qatar 등 주요 선박의 AIS를 끈 채 해협 통과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
현재 걸프만 내에는 만재선 5척과 공선 3척이 위치하며 대부분 Ras Laffan 터미널 부근에 집결
선적량이 소폭 반등했으나 전쟁 이전(월 약 85척) 대비 25% 미만 수준에 불과
상선 공격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동절기 난방 수요 성수기 진입과 맞물려 선박 공급 제약 지속 전망

▷ TotalEnergies, 잠재적 LNG 공급 차질을 자사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10% 수준

TotalEnergies는 최근 LNG 공급 차질 상황에서 불가항력(force majeure) 선언을 피하고 계약 물량을 정상 인도해 글로벌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고 언급
사내 논의 끝에 자체 포트폴리오 내 다른 공급원을 통해 화물을 우회 공급하기로 결정
고객들에게 자사 포트폴리오 역량을 입증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인시킨 계기로 설명
글로벌 2위 공급사 QatarEnergy는 Ras Laffan 피격 후 12월까지 불가항력을 연장한 상태임
TotalEnergies는 카타르 시설 피해로 인한 잠재적 공급 차질을 자사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10% 수준으로 진단
트레이더들을 통해 화물 흐름을 최적화하고 미약정 물량에서 대체 공급을 확보
위기 대응 성공으로 신규 계약 문의가 증가하고 고객 신뢰가 강화됨
이번 사태는 LNG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 운송 선복 확보, 포트폴리오 유연성의 중요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업스트림 자원뿐만 아니라 미드스트림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
글로벌 3위 LNG 기업인 TotalEnergies는 44MTPA 규모의 포트폴리오 보유 중임

△ BW LNG와 Marubeni, 스팀터빈 LNG선 폐선

BW LNG와 일본 Marubeni가 공동 소유한 노후 스팀터빈 LNG선을 폐선 매각하며 연말 노령선 퇴출 재가 기대감 형성
149.6k-CBM LNG Kano(2007년 건조, 31,022-ldt)가 인도 매수자에게 ldt당 약 530달러(실수령 약 16.4백만달러)에 매각
정기 5년 검사에서 화물창 수리 비용 과다로 해체·재활용 결정
한국 건조 엠브레인형 선박으로 Nigeria LNG 프로젝트에 장기 대선되었던 초기 8척 중 1척임
BW LNG는 노후 비효율선을 정리 중이며 현재 스팀터빈 보유 선박은 2~3척 수준에 불과
이번 매각으로 올해 폐선 LNG선은 총 7척으로 증가했으나 최고치였던 2025년 15척 대비 절반 미만 속도
장기 용선 만기 반환 증가 및 역대 최대 신조선 인도 여파로 저효율 스팀터빈선은 최신 174k-CBM 2행정 선박 대비 경쟁력 열위
중개업계는 인도 폐선업체 매입가가 개선세를 보이며 향후에도 건조할 것으로 전망함

△ MOL의 제재 받은 러시아 내빙 LNG선 4척, 소유 이전

과거 MOL이 관리하던 174k-CBM급 내빙 LNG선 4척(North Moon, Light, Ocean, Valley)이 러시아 Novatek 싱가포르 법인 및 한국 신설 관리사 IOB 소유 구조로 이전됨
9월 24일부터 해당 선박들은 Novatek Gas & Power Asia의 상업 관리 하에 들어갔으며 사할린 남쪽으로 이동
영국은 10월 1일자로 Novatek Gas & Power Asia 및 다수의 LNG선을 제재 대상에 포함
North Valley의 소유 주주이자 4척의 신규 관리사로 지정된 부산 소재 IOB는 북극항로 전문 관리사로, 향후 Arc7 LNG선 확보 및 관리 선대 확장을 추진 중
해당 선박들은 싱가포르에서 파나마로 선적을 변경하였으며, BV의 선급 철회 이후 한국선급(KR)을 통해 선급 인증을 취득
4척은 현재 비제재 상태이나, 2027년 EU의 러시아산 LNG 수입 금지령을 앞두고 Novatek, MOL, 한화오션 간 논의가 진행
대상 선박군에는 한화오션에 묶여 있는 해빙 Arc7 LNG선 6척(MOL 발주분 3척 및 Sovcomflot 계약 취소분 3척)도 포함되어 있음

△ 러시아 Arctic LNG2 3Q 수출량 1.3MTPA로 크게 증가

대미 제재 대상인 러시아 Arctic LNG 2의 3분기 수출량이 1.3백만 톤으로 전분기(802,000톤) 대비 60% 이상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 기록
수출 물량 대부분은 제재 대상 시설 물량을 유입하게 수용 중인 중국 Beihai 터미널로 향함
3분기 중 Arc7 채빙선 Konstantin Posiet 인도(Arc7 총 3척 확보) 및 Murmansk 해상 저장 공간 확보가 수출 증가를 견인
현재 Arc7 3척, Arc4 4척, 재래식 LNG선 10척 이상을 확보해 중국 전용 수송 선대를 지속 확충 중
반면 Yamal LNG 등 타 프로젝트 합산 수출량은 정기 보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5.4백만 톤에 그침
중동 분쟁발 국제 가스 가격 강세로 연내 수출 반등이 전망되며, 단일 국가 기준 중국이 최대 수입국 지위를 유지함
☞ 채빙선이 더 있나요?

△ Adnoc, 태국과 LNG 2MTPA 장기공급계약

UAE 국영 Adnoc이 태국 Gulf Group과 가스 공급을 위한 다년간의 LNG 판매구매계약(SPA) 체결
자회사 Adnoc Trading이 2027년부터 수년간 약 2백만 톤의 LNG를 인도할 예정임
Adnoc은 2035년까지 47MTPA 규모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7월 통합 마케팅·트레이딩 플랫폼 출범 완료
해당 플랫폼은 Adnoc Gas의 생산 및 투자 역량과 XRG의 인수 기반 해외 포트폴리오 확장을 결합해 운영 중임
Gulf Group 역시 미드스트림 인프라 및 해상 운송 능력 확보로 LNG 밸류체인 전 단계를 강화하는 추세임
Adnoc은 UAE 동부 해안 신규 LNG 생산 시설의 설계 경쟁 수행사 3곳을 선정하며 자체 생산 능력 확장 지속 중임

▽ NLNG, 1~7 설비 불가항력 및 미가동 상태에서 T8 사업 추진

Nigeria LNG(NLNG), 기존 설비 불가항력 및 Train 7 미가동 상태에도 8번째 액화 설비(Train 8) 추진 의지 표명
ICC Adeleye Falade는 주주 승인 검토 전담 팀을 구성했으며, FLNG 또는 섬 내 확장 옵션을 사전 검토 중
승인 요건으로 장기 LNG 구매 계약(offtake)과 원료 가스 공급 가시성 입증에 필수적임
Saipem-대우건설·Chiyoda 컨소시엄이 수행 중인 8MTPA 규모 Train 7은 시운전(진척도 7%) 단계 진입, 내년 말 가동 목표
순차 정비 프로그램들 통해 가동률이 최근 83~84%로 반등했으며, 공급 부족 해소 시 불가항력 선언 해제 방침
정부 보안 개입으로 파이프라인 무단 훼손이 0건으로 감소했으며, Amni 등과 6건의 공급 계약 체결로 피드 가스 확보 추진
Train 7 완공 및 정상화 추진과 함께 운송용 노후 스팀터빈 선박을 최신식으로 교체·개편하는 방안 검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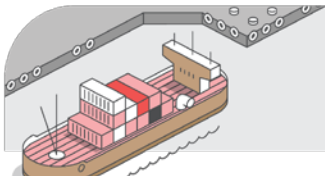
△ Venture Global, Galp에 패소

미국 Venture Global, Calcasieu Pass LNG 터미널 관련 중재 소송에서 포르투갈 Galp에 패소함
ICC 중재 판정부는 Venture Global이 상업운전개시일(COD)을 적시에 선언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함
Galp 대상 최종 배상액은 2027년 또는 2028년 후속 청문회에서 결정될 예정임
Venture Global은 Shell·Repsol 상대 승소 판결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및 방어 방침을 밝힘
고객사들은 사측이 COD를 고의 지연시키고 물량을 소켓 시장에 고가 매각했다고 주장 중임
여타 분쟁 중 BP는 승소했으며 Edison는 합의에 도달함

▶ 가스선/암모니아운반선

△ 말련 Petronas CEO, 중동과 에너지 위기는 2027년까지 혼란 지속 전망

말레이시아 Petronas CEO Tengku Muhammad Taufik은 지속되는 중동 위기로 아시아가 단·중기 에너지 시장에서 극심한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
런던 Energy Intelligence Forum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이 장기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
"저가 공급(JIT)은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시장 주기성과 가격 변동성 심화를 지적
아시아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아 정제 연료, LPG, LNG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타격이 가장 큼
공급 회복력 미확보 시 실질적 물리 공급 부족이 발생해 연말 및 2027년까지 혼란 지속 전망
아시아 중심 비상 비축 구축 제안은 국가별 재정 부담 차이로 실행이 복잡하다고 분석
상류 투자, 저장 용량 확대, 일관된 정책 부재 시 산업화 및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감당 불가 진단
각국 정부의 보조금 급증 및 물리적 연료 부족 동시 직면 위험 경고
고유가 장기화 및 LNG 가격의 mmBtu당 40~50달러 상승 시 탈석탄 계획 차질 우려
현재 투자가 감소 상쇄에 그쳐 각국 정부의 추가 탐사 및 자원 개발 장려 촉구



▶ 컨테이너선

△ Premier Alliance 수에즈 운하 및 홍해 항로 복귀를 결정

Premier Alliance(ONE, HMM, Yang Ming)가 수에즈 운하 및 홍해 항로 복귀를 결정함
Ocean Alliance, Gemini Cooperation, MSC에 이어 마지막으로 복귀하며 아시아-유럽 항로 운임 하락 압력 가중
아시아-북유럽 2개 루프(OX/INX, FE1)를 방델만데브 해협 및 수에즈 운하 양방향 노선으로 전환함
항로 단축에 따른 실질 선박 공급 증가로 FE1 루프 양쪽 운항 기간은 기존 대비 2주 단축된 11주로 조정됨
8.11k-TEU ONE Continuity가 11월 9일 수에즈를 통과하며, 7.164k-TEU ONE Reliability는 10월 22일 첫 출항 예정임
아시아-북유럽 운임은 feu당 3,260달러, 지중해는 3,555달러로 7월 고점(각각 5,878달러, 7,540달러) 대비 대폭 하락
Linerlytica는 수에즈 재개, 우회 선박 감소, 신조선 인도 증가로 teu-마일 수요 증가율이 공급을 하회한다고 분석
운임이 3개월간 약 50% 급락한 가운데 선사들은 10월 20일부터 아시아-유럽 노선 운임 인상 시도 중

△ 중국 닙보 항만,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

중국 Ningbo-Zhoushan 항만 상장사(Ningbo-Zhoushan Port Co), 9월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 대비 9.3% 증가한 5.07m-TEU 기록 예상
2026년 1~9월 누적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대비 6.1% 늘어난 41.64m-TEU 달성
상반기 Alphasliner 기준 22.9m-TEU를 처리해 싱가포르(22.74m-TEU)를 제치고 글로벌 2위에 올랐으며, 연간 순위 경쟁 지속 중
싱가포르의 1~8월 누적 30.68m-TEU(전년 대비 4.2% 증가) 기록(9월 수치 미발표)
다만 발표되는 상장사 단독 실적으로 전체 항만 복합단지 기준 싱가포르와의 실질적 격차 확대 여부는 단정 불가
Zhejiang Seaport Group, 부산발 화물을 Daxie 터미널서 재포장해 키프로스 Limassol로 운송하며 신규 동북아-지중해 환적 경로 개설
1~9월 누적 전체 화물 처리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892.55m톤을 기록했으나, 9월 단월은 1% 증가한 106.18m톤 기록(잠정치)

▶ 탱커

△ 그리스 Carlova, 일본 이마바리에 아프리카막스 탱커 2척 발주

그리스 Carlova Maritime이 일본 Imabari Shipbuilding에 114k-DWT 아프리카막스 원유운반선 2척 발주 완료
인도 일정은 2029년 4분기 및 2030년 1분기이며, 신조선가는 적당 약 75백만달러 수준으로 추정
이번 발주는 설립 이래 4번째 신조 계약으로, 아프리카막스 잔고는 중국 Hengli 1척(LR2 추정) 포함 총 3척으로 확대
대형선 부문에서는 한화오션에 적당 125백만~126백만달러로 발주한 300k-DWT VLCC 2척(2027년 4분기·2029년 3분기 인도) 보유 중
벌크에서는 Hengli에서 건조 중인 82k-DWT 캄사르막스 1척(2027년 4분기 인도) 보유
전통 선사 Samos Steamship 후신으로 일본 조선소 선호 기조를 유지하며, 현재 일본 건조 탱커 9척과 벌크 4척 운항 중

▲ 대서양 적재 VLCC 스왑 운임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900,000달러/일을 돌파

Baltic Exchange VLCC 스왑 평균 TCE 수익은 7.9% 상승한 약 924,000달러/일로 2008년 이래 역대 최고치 경신
Fearnleys는 가용 선박 부족으로 용선주 부담이 단기간 내 완화되기 어렵다고 분석
한국 Sinokor는 312k-DWT Esteem Explorer로 일본 Cosmo Oil과 미 걸프발 일본행 운송 계약을 81백만달러 lump sum에 체결되며, 기존 대비 5백만달러 상승
Dynamco도 300k-DWT Alexandros로 미 걸프발 한국행 운송 계약을 Trafigura와 76백만달러 lump sum에 체결
Maran Tankers는 321k-DWT Maran Taurus로 Unipeac과 서아프리카발 중국행 계약을 체결하며 WS 740(TCE 기준 약 791,000달러/일) 기록
75일간 총 운항 수익은 59.3백만달러에 달하며 지난 5월 WS 124(일 약 91,300달러/일) 대비 대폭 폭등

▲ VLCC TEC가 937,767달러/일로 사상 최고치 경신

VLCC 운임 폭등으로 미국 걸프-국동 용선료(약 80백만달러)가 SpaceX Falcon 9 발사 비용(74백만달러)을 상회
Fearnleys는 WS 1000 도달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Baltic Exchange VLCC TCE는 937,767달러/일로 사상 최고치 경신
시노코 용선 Esteem Explorer(312.1k-DWT), Cosmo Oil 대상 미국 걸프-일본 항로에 81백만달러로 성약
Trafigura의 Pertamina Prime(796,000달러/일)과 Koch의 Nissos Nikouria(846,000달러/일)는 남미-중국 항로 Petrobras 재용선 계약 체결
Angelicoussis Group의 Maran Leo(319k-DWT)는 WS 750(1.5백만달러/일) 수준에 성약된 것으로 전해짐

▲ VLCC 운임 급등으로, 중소형 탱커 수요 증가

미국발 VLCC 용선료 폭등으로 트레이더들이 중소형 탱커로 선호 중
Cosmo Oil은 시노코의 VLCC Esteem Explorer를 미국 걸프-일본 조건 81백만달러에 성약
운임 급등으로 차익거래 기회가 축소되며 SK에너지와 Trafigura의 76~77백만달러 규모 VLCC 계약은 무산
Trafigura는 대안으로 aframax Torm Hilde를 24백만달러에 용선해 원유 60만 배럴 수송 결정
미국발 운송비는 배럴당 40달러로 급등해 WTI 원유가의 절반 수준에 육박
아시아 정유사들의 대체 원유 검토로 미국 수출업체들의 가격 인하 압박 예상
대서양 10~11월 초 선적 VLCC 선박은 매진되었으며 중동 운임 강세로 11월 화물의 suezmax 집중 전망
서구권 선박 부족과 기상 악화 지연이 겹치며 10월 중 추가 운임 상승 압력 지속 전망

▲ Dynamco는 Trafigura와 미 걸프발 아시아행 76백만달러 용선계약 체결

Dynamco는 중동 리스크발 선박 부족 속에서 300k-DWT(2022년 건조)를 Trafigura와 미 걸프발 아시아행 76백만달러(순수익 약 69백만달러, TCE 635,000달러/일)에 용선 계약 체결
Baltic Exchange 기준 해당 항로 평가는 509,000달러/일로 1주일 만에 25%, 1개월 만에 140% 급등
Embricos의 310k-DWT Serifos(2009년 건조)도 태국 PTT와 미 걸프발 운송 계약을 50백만달러에 체결하며 8월(18백만달러) 대비 대폭 상승
반면 Dynamco 운항 LR2 PC선 Lipsi(2026년 건조)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사체 공격으로 기관실 손상 발생(인명 피해 및 해양 오염 없음)
Frontline는 Petrobras와 브라질발 역대 최고인 65.1백만달러 계약 체결, 투입 선박 Front Gander(2023년 건조)는 WS 700(TCE 734,000~804,000달러/일) 기록

▲ DHT 오만에서 1.16백만달러/일 스왑 운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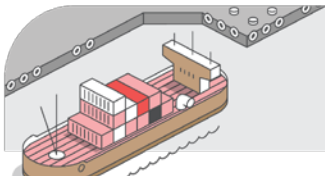
VLCC 스왑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DHT Holdings가 오만만 적재 계약에서 일 1.16백만달러(총 41.8백만달러) 계약 성사
에쓰오일은 스커버바 장착 321k-DWT DHT Antelope(2026년 건조)를 WS 825에 용선해 오만만에서 한국으로 원유 27만 톤 운송 예정
Koch Industries도 월요일 동일한 WS 825에서 300k-DWT Silverstone(2020년 건조)으로 일 1.02백만달러 오만만-일본 항로 계약 체결
표준 43일 왕복 기준 DHT 선박의 계약 가치는 953,000달러/일로 Silverstone(939,000달러/일) 대비 상승
오만만은 호르무즈 서틀 선박들의 STS 원유 환적 거점으로 활용 중임
Baltic Exchange의 VLCC 평균 수익은 일 약 856,000달러로 최고치 경신, 사우디-중국 벤치마크 운임은 일 1.35백만달러로 폭등

▲ Frontline, 브라질과 VLCC 역대 최대 스왑운임 65.1백만달러 계약

Frontline이 Petrobras와 65.1백만달러 규모 스왑 계약을 체결하며 브라질발 VLCC 기준 역대 최고 운임 기록
투입 선박 Front Gander(300k-DWT, 2023년 건조)는 WS 700 기록, 중국-브라질 왕복 기준 TCE 734,000달러/일로 1주일 만에 47.4% 급등
그리스 Delta Tankers의 Delta Glory(320k-DWT, 2012년 건조)도 Petrobras와 WS 665(일 약 631,000달러/일)에 중국행 용선 계약 체결
Baltic Exchange 기준 VLCC 스왑 평균 TCE 운임은 856,000달러/일로 치솟으며 2008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 경신
미-중 항로 스왑 운임 평가 역시 약 499,000달러/일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 대서양 전반의 운임 급등세 지속

△ Mercuria, 용선 수에즈막스 Chevron에 36백만달러 재용선

Mercuria가 용선 중인 수에즈막스 Seavision(158k-DWT, 2018년 건조)를 Chevron에 미국 걸프발 태국행 조건으로 36백만달러 lump sum에 재용선(relet) 계약 체결
직전 미국발 한국행 최고가(26.5백만달러) 대비 약 9.5백만달러 급등한 수준임
Baltic Exchange 수에즈막스 스왑 평균 수익은 일 686,000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Clarksons Securities 기준 수에즈막스 평균 운임은 1주일 만에 일 250,000달러에서 600,000달러로 급등함
STS 환적 등으로 인한 VLCC 선박 부족이 수에즈막스로 전이되며 스왑 운임 폭등 견인
Howe Robinson에 따르면 미국 걸프-싱가포르 lump sum 운임은 35백만달러(예고선 기준 일 약 318,000달러)로 직전 27백만달러 대비 대폭 상승함



△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선장들에게 보상 패키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선장들에게 월 최대 100,000달러 급여 및 통항당 50,000달러 보너스 등 대규모 보상 지급 중 Sinokor Maritime은 사우디-이라크 선적 왕복 항해(약 1개월) 수행 시 6개월 치 추가 급여 제시
선장은 1회 운항 시 90,000달러(평시 월 15,000달러), 일반 선원은 9,000달러(평시 월 1,500달러) 수령 가능 구조임
선원들의 위험 구역 하선권 행사 등으로 최근 7일간 원유 수송량은 하루 10.4백만 배럴로 전쟁 이전(17.1백만 배럴) 대비 급감
중동 겔프 선적 VLCC 스팟 운임은 일 1,300,000달러를 상회
전쟁 위험 할증료는 선체 가액의 최대 10%까지 상승해 VLCC 1척당 보험료만 20백만달러에 달함

△ PIF Energy의 2십억달러 규모 탱커 매입 계획

미국 PIF Energy는 호르무즈 해협 원유 운송을 위해 최대 15척의 탱커를 2십억달러에 매입 착수
Ben Morrow CEO는 2백만 배럴급 노후 VLCC 선대 확보 시사. 적당 약 133백만달러 수준이며, 한국산 15년 선령 중고선 시세(150백만달러) 대비 낮은 수준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원유 수송이 핵심 목표. 이라크 SOMO의 호르무즈 해협 외곽 판매용 선박 확보 전략과 연계
운항 선박에 대해 미국 최고 등급 보안 승인을 확보할 방침
PIF Energy는 2019년 설립된 신생 석유제품 트레이더로 '선행 나누기(pay it forward)' 마션 하에 추진

△ Exmar는 대한조선 건조 수에즈막스 4척 중 1척 리세일로 22백만달러 차익

벨기에 Exmar는 대한조선에 건조 중인 수에즈막스 4척 중 1척의 리세일 매각을 확정하며 약 22백만달러 매각 차익 실현 예정
대상 선박은 157.2k-DWT 유조선(선번 Hull No 5112)으로, 조선소 인도 시점인 2027년 3분기에 매수자에게 인도될 예정
매수자는 그리스 Evangelos Marinakis의 Capital Group으로 확인
Exmar는 2025년 9월 대한조선에 스크러버 장착 수에즈막스 4척을 적당 85.8백만달러에 발주한 바 있음
현재 Clarksons 기준 수에즈막스 신조선가는 약 90백만달러, 리세일 선가는 전분기 대비 +18% 급등한 150백만달러 수준으로 평가됨
Clarksons 집계 기준 수에즈막스 신조선 잔고는 213척으로 전체 선대의 약 30% 수준에 달함
⇒ 팔았으니 또 발주하세요. 대한조선에.

△ NAT 21년된 수에즈막스 65백만달러에 매각

Nordic American Tankers가 수에즈막스 선가 급등세 속에 보유 선박 중 최고령인 159k-DWT Nordic Freedom(2005년 건조, 21년 선령)을 65백만달러에 매각
해당 선박은 한국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건조 선박으로, 지난 3월 매각 추진가(40백만달러) 대비 6개월 만에 가치 62.5% 급등
이번 매각 성사 시 2025년 5월 이후 총 5척의 노후 유조선을 정리하는 셈이며, 현재 한국 조선소에 2척의 신조선 잔고 보유 중
수에즈막스 선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스팟 운임 강세와 동반 상승세 지속
Baltic Exchange 기준 수에즈막스 평균 스팟 수익은 일 684,000달러로 사상 최고치 경신
10년 선령 수에즈막스 평가 가치도 1주 만에 99.2백만달러로 상승하며 자산 가치 평가 집계 이래 최고치 기록
⇒ 팔았으니 또 발주하세요. 한국에.

▶ 오프쇼어/디펜스

△ Golar LNG, 4번째 FLNG 개조할 LNG선 인수

Golar LNG가 4번째 FLNG로 개조할 대상 선박으로 NYK Line의 177k-CBM급 스팀터빈 LNG선 Grace Dahlia(2013년 건조) 인수 합의
일본 건조 내빙 사양으로 현존 운항 모스(Moss)형 LNG선 중 최대 크기이며 매입가는 미공개
중국 CIMC Raffles Yantai 조선소에서 개조 중인 3.5MTPA급 FLNG Esperanza 대비 저장 용량이 약 20% 더 커 추가 오프로딩 유연성 확보 가능
검증된 Mark II 설계를 반복 적용하며 약 2.45십억달러 예산 투입
장기 계약 없이 오픈 상태로 개조 진행되며 2029년 인도 예정
개조 완료 시 모리타나-세네갈, 카메룬, 아르헨티나에 이은 4번째 FLNG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용화 가능한 신규 설비 공급 역량을 확보할 전망

△ Seatrion은 Exceletrate Energy로부터 LNG-FSRU 개조 2건 수주

미국 Exceletrate Energy, 싱가포르 Seatrion과 최대 2척의 LNG선-FSRU 개조 EPCIC 계약 체결(확정 1척 + 옵션 1척)
선박 매입비 포함 총 개조 비용은 230백만~250백만달러 수준이며, 확정 계약 및 옵션 가치는 비공개
3분기 Mei Ji Shipping에서 79백만달러에 매입한 170k-CBM Methane Patricia Camila(2010년 건조)가 1번째 개조 대상으로 유력
개조 선박은 170k-CBM 저장 용량, TFDE 발전 및 재액화 기술이 적용되며 연내 엔지니어링 착수 후 2028년 인도 예정
인도 시 Exceletrate Energy 선대의 13번째 FSRU로 편입될 전망이며, 구 Methane Alison Victoria도 향후 추가 개조 후보군으로 유력
계약 범위는 재기화, LNG 이송·화물 처리, 유틸리티·오프로딩, 전기·자동화, 선체 개조 및 인프라 전반 포함
Seatrion은 2007년 이후 총 22건의 FSRU-FLNG-FSU 개조를 수행했으며, 이번 계약은 양사 간 첫 EPCIC FSRU 개조 프로젝트임
Karpowership 수주에 이은 성과로 FSRU 개조 시장 내 글로벌 입지 공고화 평가

▽ 싱가포르 Seatrion이 Karpowership의 FSRU 개조 수주, 9척 LOI 중 2번째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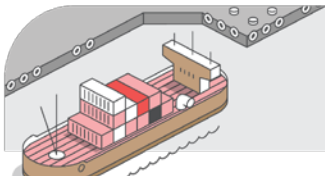
싱가포르 Seatrion이 Karpowership의 Kinetics Energies 이니셔티브로부터 FSRU 개조 계약 수주
LNG선 Arctic Voyager를 FSRU(개조 후 선명: LNGT Akdeniz)로 전환하며, 2027년 1분기 착수 후 2028년 3분기 인도 예정
엔지니어링, 개조, 재기화 설비 설치 및 시운전을 포괄하며 계약 금액 및 선박 매입가는 미공개
개조 완료 시 일일 최대 600백만 입방피트 재기화 능력과 약 143k-CBM 저장 용량을 갖추며 기대 경제 수명은 20년
2025년 8월 양사 간 체결된 LOI(FSRU 3척 및 파워십 최대 6척 옵션) 중 2번째 구체화 프로젝트임
에너지 안보 및 신속한 인프라 배치 수요에 따라 부유식 LNG 솔루션 선호 지속 전망
⇒ 카파워십, 힘센엔진이 필요하면, 앞으로는 HD현대마린솔루션으로 오세요.

△ 남아공 FLNG 사업 재추진

남아공 Block 11B/12B 운영사 Main Street 1549가 4.5조 입방피트 규모 가스전 개발 위해 FLNG 도입 재추진
1단계 Luiperd 개발 후 Brulpadda 및 인근 잠재 구조로 확장 구상
3.6MTPA 규모 신조 FLNG 도입 시 심해 유정 직접 계류 또는 대륙붕 연계 검토
생산 가스는 LNG선 이송, 콘덴세이트는 1백만 배럴급 FSO 및 셔틀 탱커로 수출 설정
일일 가스 560백만 입방피트·콘덴세이트 50,000배럴 처리 역량의 FPSO 연계 방안도 병행 검토
혹독한 해상 환경 극복 위해 해상 설비 전반에 터렛 계류 방식 적용 방침
TotalEnergies 등 기존 메이저의 지분 90% 양도가 미완료되어, 현재 실질 지분은 10% 수준
지분 이전 완료 시 파터너사 Africa Energy 주도로 2028년 말까지 지분 구조 조정 추진 예정

▽ NFE의 멕시코 책임형 FLNG 기계 결합으로 가동 중단

미국 New Fortress Energy(NFE)의 멕시코 해상 Altamira LNG 프로젝트(FLNG 1)가 가스터빈 결합으로 가동 중단
NFE는 SEC 공시를 통해 결합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제조사와 협력해 연내 재가동을 예상한다고 밝힘
해당 설비는 9월 13일 이후 선적을 중단한 상태이며, 향후 수개월간 가동 차질 가능성 제기
FLNG 1은 책임 리그 3기(Pioneer I, II, III)로 구성된 1.4MTPA 규모 설비로 2024년 첫 화물 선적 완료
2024년 9월 미 에너지부(DOE)로부터 5년 만기 대미 파이프라인 가스 기반 LNG 수출 허가 획득
반면 FLNG 2 및 육상 설비 연계 확장 계획은 멕시코 당국의 가스 운송·판매 불승인으로 제동 걸린 상태임



△ Shell은 말레이시아 가스 프로젝트 KKB에 발주

Shell이 말레이시아 해상 TePu 및 TuNai 가스전 고정식 구조물 EPC 계약을 KKB Engineering 자회사 OceanMight에 발주 대상지는 Sarawak Block SK 408 및 MLNG PSC 구역 내 천해 가스전들
6월 제출된 EIA 기준 Teja-101, Pepulut 101, TuNai 등 총 3기의 무인 웰헤드 플랫폼(WHP) 설치 계획
TePu는 28km 및 14.5km 배관 부설과 F23 허브 개조 포함, TuNai는 4.5km 배관 및 해저 Y자 연결부 구축 요구
3기 WHP 합산 생산 능력은 일일 최대 320백만 입방피트로 Bintulu MLNG 프로젝트 원료로 공급 예정
플랫폼 3기 모두 2028년 3월 설치 예정이며 필드별 각 1정씩 개발 시추 진행
최초 생산 목표는 Pepulut 2029년 7월, Temu 9월, Teja 10월, Inai 12월 순으로 설정
KKB는 현지 타사 일감 포함 총 462백만 링깃(약 114백만달러) 규모 수주를 확보함
Shell 납품용 구조물은 2027년 12월까지 인도 준비 완료 예정

△ 미국 Baker Hughes, 베네수엘라 에너지 인프라 전략적 협약 2건 체결

미국 유전 서비스 대기업 Baker Hughes가 베네수엘라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및 재건 가속화를 위해 2건의 전략적 협약을 체결함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사 PDVSA 및 미국 기업 Lindsayca, Fulcrum LNG와 함께 자국 천연가스 밸류체인 확장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음
캐나다 기업 New Stratrus Energy와도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베네수엘라 내 유망 석유 및 가스전 개발 지원에 합의함
체결된 협약들은 상류(업스트림) 자원 개발부터 미드스트림 인프라, 가스 현금화, LNG 상업화까지 연결해 베네수엘라의 가스 잠재력을 실현하는 엔터프라이즈 거래 프레임워크를 구축함
Lorenzo Simonelli Baker Hughes CEO는 이번 핵심 목표가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안정적인 국내 공급원 및 향후 수출 기회로 전환하는 통합 가스 밸류체인 구축에 있고 베네수엘라산 최초의 LNG 수출 잠재력도 포함된다고 밝힘

▶ 기타

△ HD현대,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을 조선 총괄 부회장으로 선임

HD현대는 업계 불확실성에 대비해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을 조선 총괄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조선 사업 전반 지휘권 부여
이상균 부회장은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상호의 전략 수립 및 운영 조율을 직접 총괄할 예정
1983년 입사 후 삼호중공업 및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거친 40년 재직 베테랑으로, 데이터센터 엔진 발전과 SMR 등 신사업도 진두지휘할 계획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KOSHIPA) 회장으로서 150십억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미 조선 협력에서도 중추적 역할 수행 중임
안전 경영 강화를 위해 33년 경력의 안전 전문가 한주석 조선사업 대표(부사장)를 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안전 총괄 각자대표이사로 내정
이는 지난 8월 울산 및 군산 사업장 내 연이은 끼임 사망 사고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따른 후속 조치
인사 개편으로 HD현대중공업은 이상균·조민수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되며, 급속히 사장은 경영지원 총괄에 집중할 예정
엔진 사업 확장을 위해 33년 경력의 엔진 전문가 한주석 엔진기계사업본부장(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
한주석 사장은 8,300억원(590백만달러) 규모 데이터센터 발전용 엔진 중설 투자 및 HD현대마린엔진·HD현대엔진과의 시너지 창출을 주도할 방침
HD현대는 조선 핵심 경쟁력 강화와 안전 최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후속 임원 인사 및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차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

△ 콜롬비아 석탄 수출 반등

콜롬비아 석탄 수출은 2025년 물류 차질 및 감산 여파(46.9m톤, 18% 감소)에서 벗어나 2026년 1~8월 약 33m톤(전년비 12% 증가)으로 반등세 시현
반등 요인은 석탄 FOB 가격 100달러 돌파와 친석탄 성향의 Abelardo de la Espriella 신정부 출범에 따른 탐사 금지 중단 및 대이스라엘 수출 제한 철폐 등 우호적 정책 전환에 기인
주요 생산업체 Glencore는 업황 개선에 맞춰 생산량을 올해 17m톤에서 2027년 약 20m톤으로 확대 추진
해운 시장에서는 중동 분쟁발 아시아의 석탄 수요 증가와 케이프사이즈 대비 파나마식 운임 매력도가 부각되며 장거리 아시아행 노선 내 파나마식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8월 53만톤)로 급증

▷ 호르무즈 해협 분쟁으로 인한 TotalEnergies 해운 부문 영향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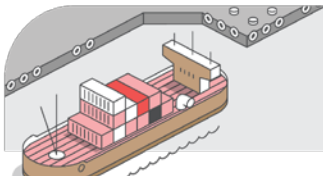
호르무즈 분쟁 여파로 TotalEnergies 해운 업무 초점이 유조선에 집중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주사 최고경영진과 직접 소통 유지 중
지난 2월 분쟁 당시 걸프만 내 억류된 자사 화물 선박 13척(탱커 4~5척, 벌크선 2척, 잔여 PC선) 중 일부는 6월 미-이란 양해각서 체결 후 통항 완료
홍해 공격 격화로 선원 안전 우려 및 인력 확보 병목 심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빈곤국 수요 파괴 및 글로벌 에너지 유연성 소진 우려 제기
운용 선대는 약 300척(장기용선 100여 척, 스룻 200여 척)으로 원유 탱커 50여 척, 장기 LNG선 20여 척, VLGC 8척 등으로 구성
고위험 해역 통항 시 선주의 AIS 차단 사례가 있으나 대체 통신망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추적 관리 중
홍해 및 흑해 리스크로 톤-마일 수요 급증해 원유 물류가 경색되며 VLCC 운선료가 일 1,000,000달러를 돌파할 환경 조성
단기 LNG 시황은 공급이 충분하나 유럽항 재고 비축 차이 거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장기 계약 및 투자 결정은 유보적임
한국 조선소 2개사에 묶여 있는 Mozambique LNG 전용 17개 슬롯의 발주는 첫 LNG 생산 일정 확정 및 연동
친환경 연료 관련 EU 규제 하에서 LNG D/F 경제성은 유지되나 고선가로 발주는 둔화 추세
메탄올 D/F 선은 고가의 그린 메탄올, 병커링 차질, 엔진 문제 등으로 메탄올 개조 활용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
임모이나 추진선은 기술 검증 필요성으로 선도 그룹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관망세 유지 중

▽ 한국 운영 VLCC 해킹

미국 FBI와 해안경비대는 8월 VLCC 디지털 시스템 침입 및 추진 시스템(propulsion systems) 해킹 정황 확인
공격 대상은 319.5k-DWT 탱커 VL Prosperity(2015년 건조), DB상 한국 글로벌마린피앤아이 선주·HMM조선서비스 기술 관리이며 실소유/운영은 현대글로벌비스로 언급됨
대행사 MTI network는 8월 21일 미 당국의 사이버 보안 점검 후 정상 운항 승인을 받았으며, 선내 IT와 OT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분리·격리 관리 중이라고 설명
운항 차질, 선원 위험, 해양 환경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현재 미국 텍사스 Galveston 외해에 묘박 중임
미 당국은 전 세계 20여 척의 선박 사이버 위협을 추적 중이며, 대상 선박에 대해 미국 입항 시 사전 통보를 요구함

▷ 시도상선 권혁 회장, 미납 세금에 선박 5척 담보 제공

Cido Shipping 설립자 권혁 회장이 15년간 미납된 종합소득세 3,938억원(약 295백만달러) 해결을 위해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함
지난 7월 현금 100백만달러를 우선 납부 완료함
잔여 체납액은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선박 5척을 기반으로 분할 납부될 예정임
국제정 역사상 최대 규모 체납 징수 사례이며, 총액의 절반 가까이는 가산금 및 지연가산세로 구성됨
권 회장은 비거주자 신분을 주장했으나 국제정의 해외 자산 압류 착수 후 납부에 합의함
관련 법인 2차 납세의무분을 포함할 경우 장부상 총 체납 규모는 7,902억원에 달함
1990년 Cido Shipping 설립 후 급성장해 전성기 선대 200척을 돌파했으나 2007년 금융위기 여파로 선대를 축소함
Clarksons 기준 현재 운항 선박 80척 및 신조 잔고 62척을 보유 중임
NAT 창립자 일가가 주식 추가 매입을 통해 보유 지분 가치를 약 99백만달러 수준으로 확대함
Alexander Hansson 부회장은 주당 8.44달러에 300,000주(2.5백만달러)를 추가 매입함
일가 전체 보유 주식은 12백만주로 늘어나 최대 개인 투자자 지위를 공고히 함
Herbjorn Hansson CEO는 강력한 유조선 시황을 바탕으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함
수에즈막스 운임 최고치 경신에 힘입어 NAT 주가는 연초 대비 144% 급등함
21년 선령의 159k-DWT Nordic Freedom을 지난 3월 추진가(40백만달러)를 웃도는 65백만달러에 매각함
2분기 실적은 매출 79백만달러, 순이익 68.3백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함
배당금은 주당 0.27달러로 인상되었으며, TCE 수익은 63,000달러/일로 증가함
3분기 운항 일수의 75%를 54,000달러/일 수준에서 사전 확보 완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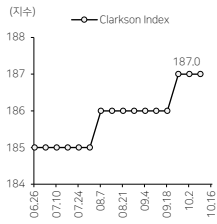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6.10.11 [84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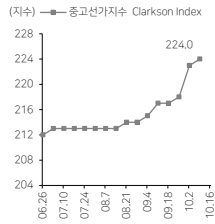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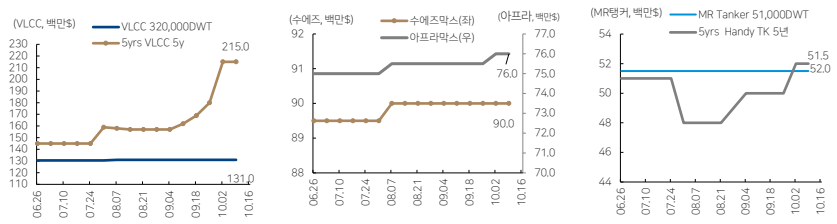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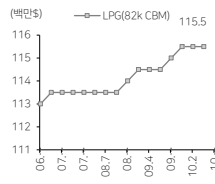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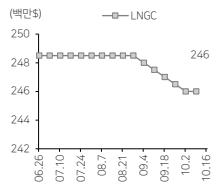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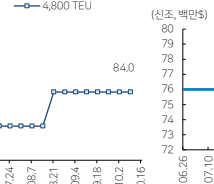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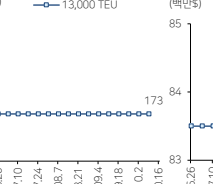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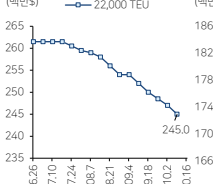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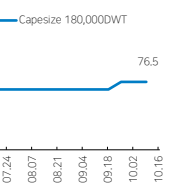
▶ 가스선들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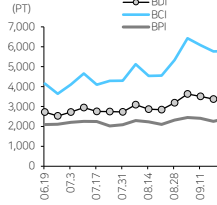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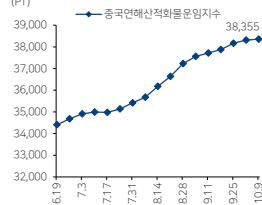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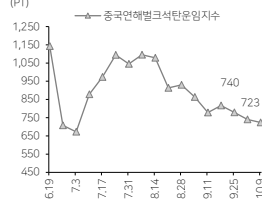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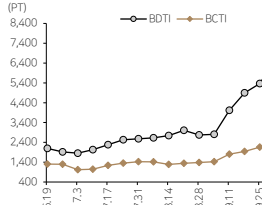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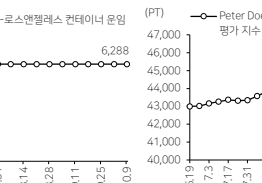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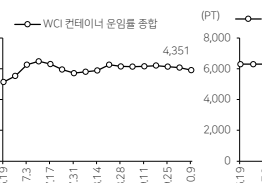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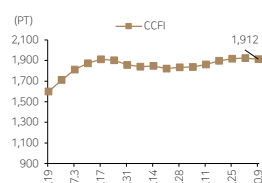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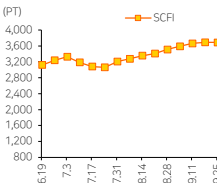
▶ 중국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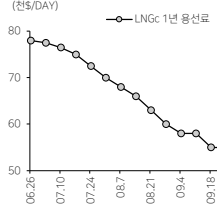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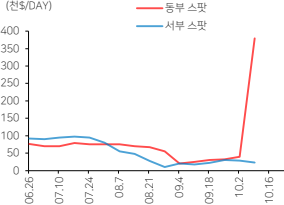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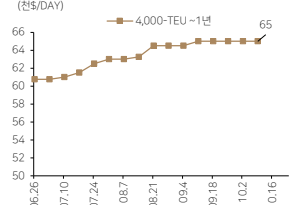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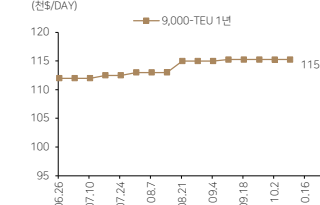
▶ LNG선 용선료(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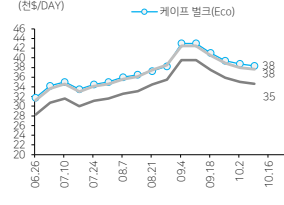
▶ LNG선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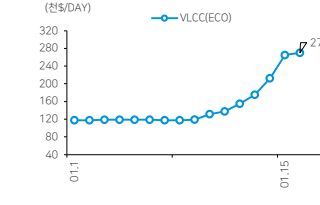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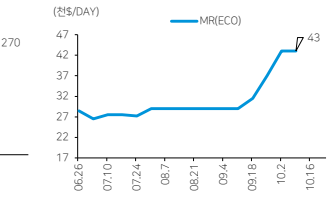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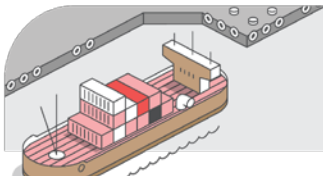


▶ 탱커 - VLCC



▶ 탱커 - MR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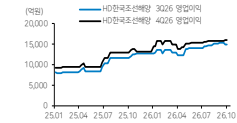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6.10.11 [84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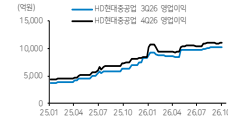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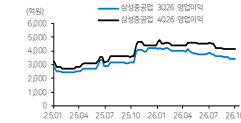
▶ HD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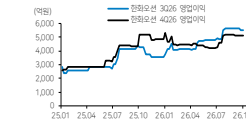
▶ HD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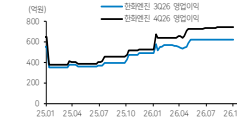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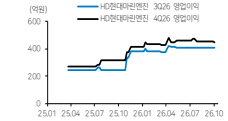
▶ 한화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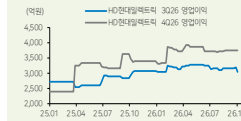
▶ 한화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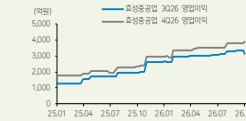
▶ HD현대마린엔진



▶ HD현대일렉트릭



▶ 효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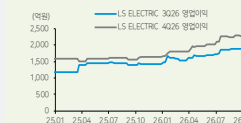
▶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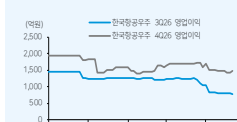
▶ HD건설기계



▶ LS Elec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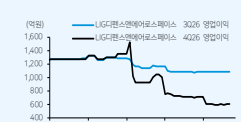
▶ 한국항공우주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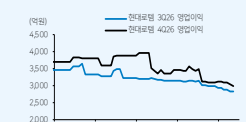
▶ LIG넥스원



▶ 한화시스템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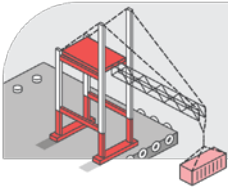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26 EPS(원)								Chang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6.09.11	26.09.18	26.09.25	26.10.02	26.10.08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26 PER	증가
조선	HD한국조선해양	47,613	49,155	50,066	53,747	55,375	55,425	55,425	55,493	55,493	3%	0%	5.3	291,500
	HD현대중공업	25,526	29,075	29,169	30,527	30,763	30,687	30,687	30,712	30,699	1%	0%	12.5	384,000
	삼성중공업	1,380	1,201	1,204	1,068	1,063	1,047	1,047	1,042	1,058	-1%	0%	17.8	18,860
	한화오션	4,475	5,024	5,048	6,425	6,422	6,428	6,453	6,505	6,505	1%	1%	11.1	72,000
엔진	한화엔진	2,081	2,315	2,511	2,511	2,493	2,493	2,493	2,493	2,493	-1%	0%	16.5	41,050
	STX엔진	2,070	2,019	2,030	2,117	2,108	2,108	2,108	2,108	2,108	0%	0%	9.8	20,600
	HD현대마린엔진	4,170	4,255	4,255	3,786	3,811	3,811	3,811	3,825	3,837	1%	1%	11.2	42,800
건설기계	HD건설기계	9,833	10,792	10,819	12,291	12,715	12,715	12,715	13,056	12,865	5%	1%	8.3	107,200
	두산밥캣	5,316	5,521	5,362	5,767	5,998	5,998	5,998	5,958	5,825	1%	-3%	9.1	53,200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520	458	466	493	499	510	510	529	529	7%	6%	147.4	78,000
	HD현대일렉트릭	27,050	27,279	27,090	26,555	26,453	26,453	26,453	26,372	25,993	-2%	-2%	23.3	606,000
	효성중공업	85,605	84,548	84,457	82,830	84,222	84,224	84,107	83,596	82,494	0%	-2%	30.2	2,494,000
	LS ELECTRIC	3,246	3,339	3,379	3,608	3,605	3,605	3,605	3,596	3,600	0%	0%	54.3	195,500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3,748	3,544	3,517	2,758	2,475	2,443	2,395	2,361	2,381	-14%	-4%	51.0	121,4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5,775	41,659	41,533	44,528	45,005	45,048	45,048	45,271	45,271	2%	1%	19.7	891,000
	LIG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	16,917	16,438	16,543	16,873	16,469	16,520	16,510	16,445	16,384	-3%	-1%	37.6	616,000
	한화시스템	1,631	1,276	1,203	808	736	744	744	746	746	-8%	1%	102.7	76,600
	현대로템	8,591	8,435	8,718	8,231	8,202	8,152	8,152	7,903	7,873	-4%	-4%	13.4	105,200
피팅	현대엘리베이터	5,129	5,129	5,129	4,221	4,221	4,221	4,221	4,221	4,221	0%	0%	16.6	69,900
	성광벤드	1,767	1,756	1,767	1,544	1,539	1,555	1,555	1,555	1,555	1%	1%	18.5	28,700
	태광	2,044	2,028	2,067	2,000	3,172	3,653	3,653	3,653	3,653	83%	15%	7.2	26,250
	하이록코리아	4,209	4,320	4,320	4,754	4,920	4,920	4,920	4,920	4,920	3%	0%	7.0	34,450

그룹	종목	2026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6.09.11	26.09.18	26.09.25	26.10.02	26.10.08	2026	2027	2026 PBR
조선	HD한국조선해양	221,363	224,388	224,836	217,817	219,921	219,921	219,921	220,706	220,706	25%	27%	1.3
	HD현대중공업	108,874	115,267	114,291	111,105	110,541	110,170	110,170	110,179	110,165	28%	29%	3.5
	삼성중공업	6,338	6,037	6,071	6,001	5,997	6,000	6,000	6,013	6,014	18%	24%	3.1
	한화오션	24,498	25,085	25,105	26,916	26,913	26,929	26,955	26,979	26,979	24%	21%	2.7
엔진	한화엔진	8,796	9,112	9,158	9,144	9,074	8,992	8,992	9,028	9,007	28%	42%	4.6
	STX엔진	10,668	10,552	10,573	10,673	10,651	10,651	10,651	10,651	10,651	20%	20%	1.9
	HD현대마린엔진	18,790	18,843	18,843	15,128	14,392	14,392	14,392	15,555	15,555	25%	28%	3.8
건설기계	HD건설기계	98,696	89,608	100,552	113,242	101,663	101,663	101,663	102,883	102,692	13%	13%	1.0
	두산밥캣	79,065	80,333	80,424	80,635	80,533	80,533	80,533	80,464	80,572	7%	7%	0.7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12,719	12,746	12,733	12,930	12,953	12,962	12,962	12,979	12,979	4%	7%	6.0
	HD현대일렉트릭	76,261	75,987	75,799	74,771	75,178	75,178	75,178	75,169	74,791	35%	38%	8.1
	효성중공업	330,545	329,534	374,873	327,680	329,497	329,497	329,710	329,466	328,368	25%	32%	7.6
	LS ELECTRIC	16,450	16,597	16,623	16,639	16,668	16,668	16,668	16,638	16,591	22%	28%	11.8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22,027	21,841	21,831	21,133	20,920	20,928	20,997	20,882	20,883	11%	19%	5.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31,436	224,162	224,388	229,832	231,804	233,465	233,465	236,107	236,107	19%	21%	3.8
	LIG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	74,852	74,997	74,754	77,555	77,674	77,598	77,941	79,011	80,022	20%	25%	7.7
	한화시스템	27,144	30,246	29,584	29,090	29,406	29,078	29,078	28,597	28,597	3%	7%	2.7
	현대로템	36,131	36,019	36,311	35,670	35,624	35,584	35,584	35,300	35,455	22%	24%	3.0
피팅	현대엘리베이터	28,500	28,500	28,500	35,452	35,452	35,452	35,452	35,452	35,452	12%	11%	2.0
	성광벤드	21,960	21,941	21,910	21,897	21,811	21,799	21,799	21,799	21,799	7%	9%	1.3
	태광	25,959	25,797	25,813	25,849	26,975	27,442	27,442	27,442	27,442	13%	12%	1.0
	하이록코리아	41,553	41,973	41,973	41,973	42,224	42,224	42,224	42,224	42,224	12%	12%	0.8

출처: Dataguide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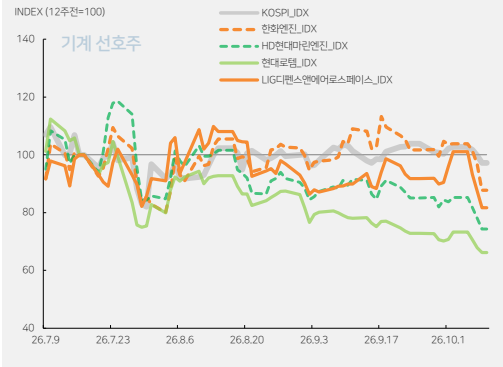
2026.10.11 [843호]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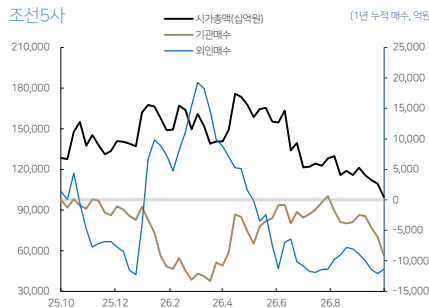
▶ 당사 선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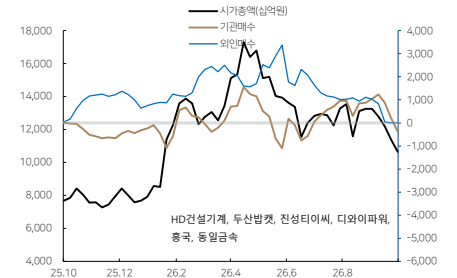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기관, 외국인 누적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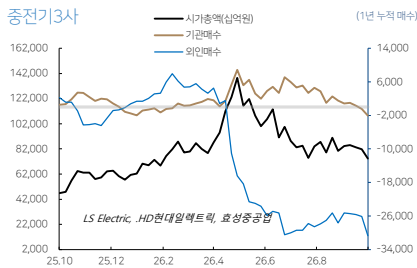
조선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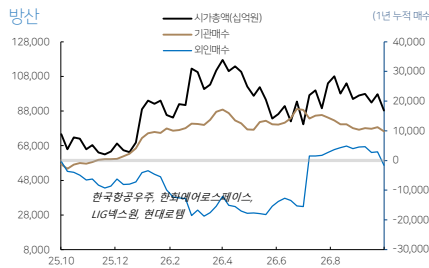
건설기계 메이커2사 +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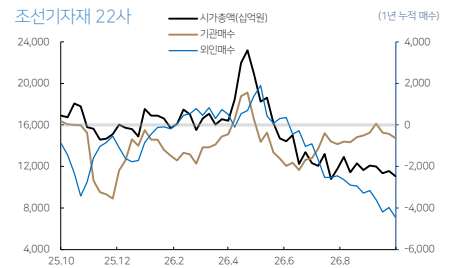
중전기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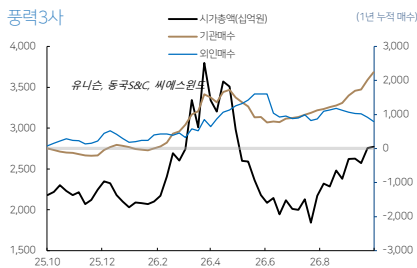
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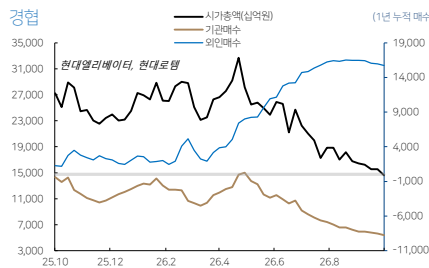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2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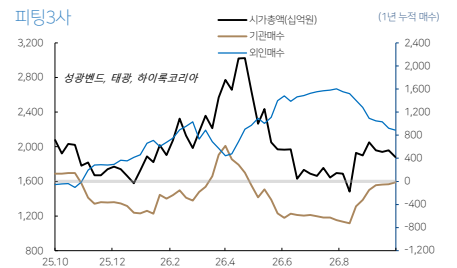
풍력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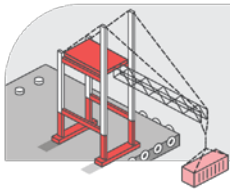


경협



피팅3사





다올 기계 ChartBook

2026.10.11 [843호]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인프라: 건설기계 / 부품							
건설기계	HD건설기계	3,794	-9.1%	-24.4%	-9.8%	11%	70%
	두산밥캣	3,800	-3.6%	-15.7%	-18.0%	-7%	4%
	CATERPILLAR	367,956	-5.3%	-1.9%	-16.9%	63%	199%
	KOMATSU	42,888	-2.7%	-1.6%	10.1%	37%	90%
	HITACHI CM	7,476	-0.9%	-5.3%	2.8%	18%	26%
	VOLVO	64,163	0.2%	-7.5%	-6.6%	18%	39%
중국	SANY	22,967	-3.1%	-16.2%	-8.7%	-26%	11%
	XCMG	12,511	-0.7%	-14.7%	-15.1%	-36%	18%
소형	DEERE	167,419	-9.6%	-8.3%	-0.1%	39%	63%
	CNH	14,098	-15.4%	-18.1%	6.3%	13%	-3%
	TAKEUCHI	2,253	-1.5%	0.3%	-1.6%	40%	42%
	TEREX	5,792	-10.7%	-18.1%	-25.7%	0%	-4%
	SUMITOMO HI	4,532	-6.1%	2.4%	9.0%	66%	59%
	SANDVIK	45,247	-0.3%	-8.1%	-12.4%	35%	82%
부품	UNITED RENTALS	65,751	-2.3%	2.7%	-3.8%	11%	144%
	디와이파워	89	-2.7%	-5.7%	-4.5%	-11%	-15%
	전성타이시	174	-7.0%	-17.3%	-23.9%	-19%	1%
	우림기계	89	0.3%	10.4%	12.8%	52%	46%
	홍국	45	-1.0%	-4.4%	-6.7%	4%	-15%
	동일금속	51	-0.3%	0.5%	0.9%	-6%	-24%
가야바	KUBOTA	18,892	-2.1%	-7.4%	-4.3%	38%	22%
	가야바	1,202	3.2%	0.6%	16.1%	23%	105%
	Hengli	16,979	-6.2%	-16.6%	-30.3%	-14%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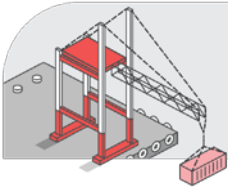
방위산업 / 항공부품							
방산/항공	한국항공우주	8,818	-9.1%	-6.0%	-22.4%	13%	13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4,234	-16.9%	-15.0%	-24.2%	-14%	725%
	LIG디펜스엔지니어링	10,098	-19.2%	-8.5%	-23.0%	28%	588%
	한화시스템	10,783	-7.6%	7.6%	-1.0%	32%	500%
	아스트	174	-1.9%	0.5%	6.7%	6%	-73%
	퍼스텍	210	-11.3%	-6.8%	-4.6%	21%	60%
방산/항공	하이즈항공	29	0.0%	-0.2%	4.6%	-8%	-33%
	오르비텍	125	-8.1%	-19.7%	-7.6%	38%	27%
	Boeing	150,463	-1.6%	-7.8%	-15.9%	-10%	3%
	Airbus	166,497	-0.8%	-4.3%	-8.9%	-7%	54%
방산	LOCKHEED MARTIN	117,609	0.8%	-2.8%	-6.7%	1%	16%
	Raytheon Technologies	250,643	0.7%	-5.9%	-6.7%	18%	154%
	Northrop grumman	68,293	0.6%	-6.8%	-12.4%	-23%	-2%
	GENERAL DYNAMICS	89,627	0.4%	-6.1%	-11.3%	-1%	36%
항공	BOMBARDIER	20,908	-4.2%	-5.2%	-9.3%	53%	511%
	EMBRAER	13,173	-5.4%	-4.3%	11.0%	27%	431%
항공 부품	ROLLS ROYCE	152,001	-6.2%	-4.2%	-7.9%	22%	550%
	SAFRAN	148,022	-4.2%	-2.0%	-11.4%	6%	112%
	SPIRIT AERO	#N/A N/A	0.0%	0.0%	0.0%	4%	134%
	TRIUMPH	#N/A N/A	0.0%	0.0%	0.0%	0%	263%
	MHI	78,188	-3.8%	-3.8%	-3.2%	-9%	336%
	KHI	12,619	-3.1%	-5.8%	-19.2%	17%	210%
	FHI	11,507	2.1%	-0.6%	1.0%	-17%	-10%
	IHI	17,957	-3.0%	-6.2%	-8.5%	-7%	508%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원)	1W	1M	3M	3M 주가	1Y	3Y
에너지: 피팅 / 발전 / 중전기 / 풍력								
풍력	씨에스윈드	1,750	0.5%	9.6%	32.3%		30%	5%
	SK오션플랜트	563	0.9%	-7.0%	21.0%		-49%	-31%
	세진중공업	394	-7.2%	10.2%	31.1%		-55%	86%
	유니슨	242	-2.2%	-9.7%	5.2%		2%	2%
	동국S&C	73	9.0%	25.8%	5.8%		-27%	-43%
	태웅	530	-6.3%	-1.4%	20.1%		7%	115%
	VESTAS	28,273	-5.2%	-11.6%	1.3%		42%	28%
	GOLDWIND	9,238	-5.1%	-8.4%	-33.5%		3%	77%
	NORDEX	9,426	-7.1%	-10.0%	-22.5%		50%	242%

중전기	LS Electric	21,852	-6.7%	-6.5%	-16.1%	224%	1051%
	효성중공업	17,329	-10.4%	-14.0%	-25.6%	66%	1319%
	HD현대일렉트릭	16,277	-10.6%	-18.3%	-36.0%	-8%	746%
	ABB	174,893	-2.8%	1.7%	-8.9%	37%	142%
	Schneider	172,483	-12.1%	-8.0%	-4.9%	9%	74%
	WEG	43,315	0.0%	-0.4%	10.7%	40%	49%
	Crompton Greeves	1,365	1.2%	-12.0%	-24.3%	-29%	-32%
	TBEA	13,393	2.4%	-8.0%	-19.4%	-10%	20%
피팅	성광밴드	568	-5.7%	-16.9%	3.2%	-15%	102%
	태광	506	-6.1%	-6.3%	6.3%	-8%	57%
	하이록코리아	302	-5.1%	1.5%	7.0%	-5%	34%
발전	두산에너지빌리티	37,231	-3.8%	-14.4%	-9.9%	5%	437%
	비메이지아이	1,236	-9.9%	-19.2%	-1.7%	-1%	580%
	S&TC	468	-12.4%	-15.8%	15.6%	-43%	358%
	DONGFANG	11,617	2.0%	-10.8%	-18.7%	13%	52%
	BHEL	15,571	2.6%	-0.1%	12.9%	81%	237%
	MHI	78,188	-3.8%	-3.8%	-3.2%	-9%	336%
	IHI	17,957	-3.0%	-6.2%	-8.5%	-7%	508%
	SIEMENS	238,497	-1.3%	3.1%	-3.7%	13%	104%
	General Electric	319,777	-0.4%	-5.3%	-18.4%	6%	253%
	ALSTOM	8,076	3.5%	-1.6%	-2.6%	-30%	30%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 경합							
철도	현대로템	8,556	-9.7%	-16.3%	-47.5%	-52%	274%
	ALSTOM	8,076	3.5%	-1.6%	-2.6%	-30%	30%
	Bombardier	20,908	-4.2%	-5.2%	-9.3%	53%	511%
	CNR	71,120	-1.5%	-0.2%	-2.5%	27%	14%
	CAF	3,030	2.6%	4.4%	22.7%	49%	181%
	CSR	25,871	1.6%	-0.9%	16.0%	-16%	49%
승강기	현대엘리베이터	2,036	-4.0%	-7.3%	-3.1%	-15%	52%
	KONE	31,373	4.0%	6.4%	4.0%	-6%	34%
	THYSENKRUPP	9,564	-2.5%	-10.5%	14.8%	40%	170%
	MITSUBISHI ELEC.	68,651	-2.3%	-0.5%	-13.5%	31%	184%
	HITACHI	162,416	2.7%	9.6%	22.8%	28%	211%
	SHANGHAI ELEC.	13,199	-1.9%	-9.8%	-19.5%	-44%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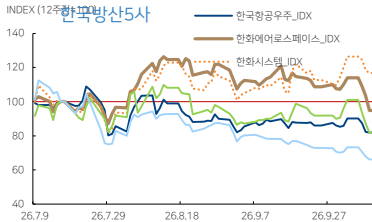
공작기계 / 기타									
공작기계	화천기계	60	-1.9%	1.8%	5.8%		11%	11%	
기타	와이지원	337	-5.7%	10.2%	46.2%		138%	111%	
	S&T중공업	711	12.0%	-0.9%	19.9%		-58%	148%	
	Amada	5,172	-1.8%	6.0%	16.1%		38%	66%	
	Moriseiki	2,764	-2.3%	-0.1%	25.8%		-11%	6%	
	Jtekt	4,295	0.7%	4.7%	0.1%		48%	63%	
	Okuma	2,041	-0.7%	10.5%	-3.2%		36%	41%	
	Makino	2,575	3.1%	10.9%	6.8%		44%	152%	
	Gildemeister	4,110	-0.2%	-1.9%	-1.1%		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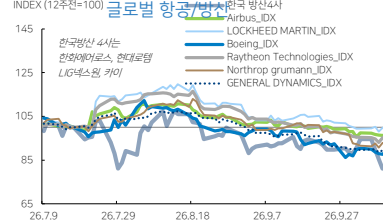
방위산업과 항공부품주

방위산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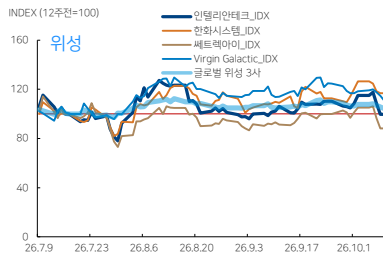
▶ 한국의 방산 3사+한화시스템+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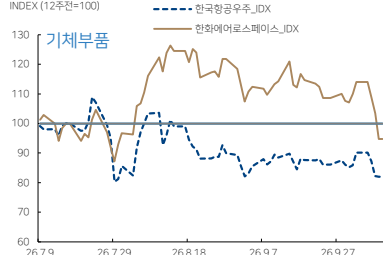
▶ 글로벌 방산/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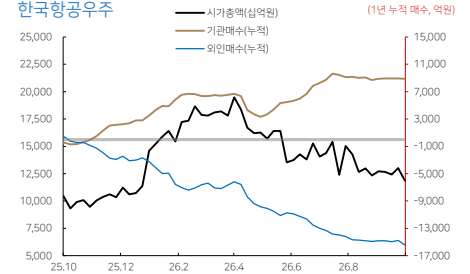
▶ 한국과 해외 위성 피어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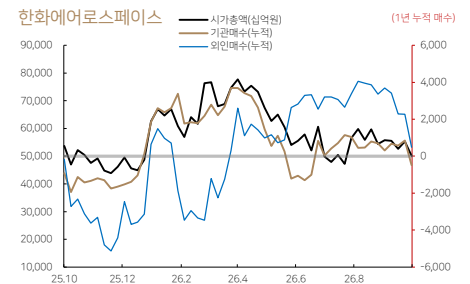
▶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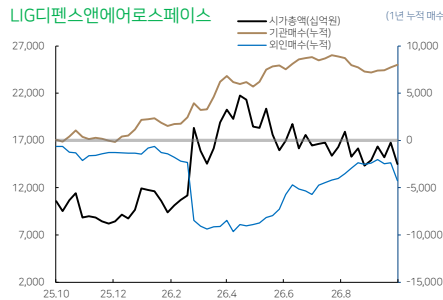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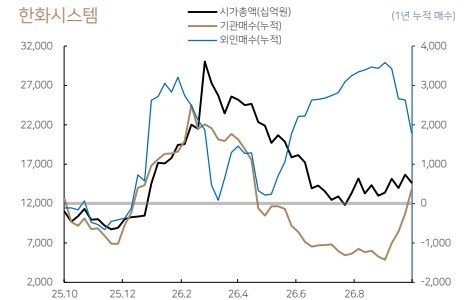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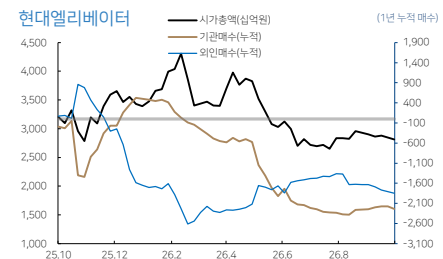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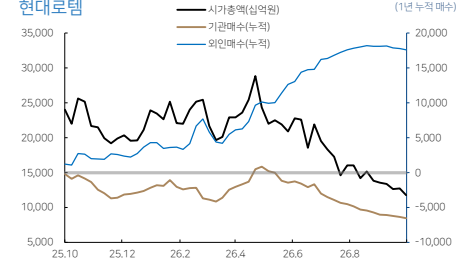
한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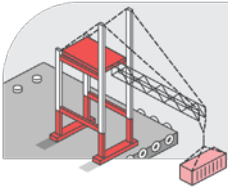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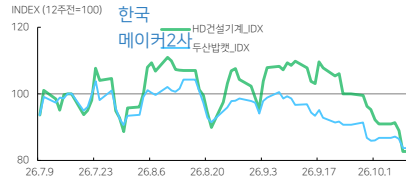
2026.10.11 [843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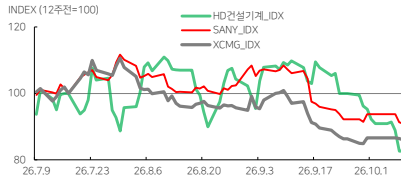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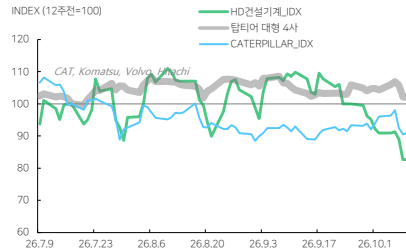
▶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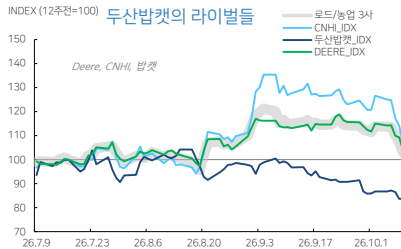
▶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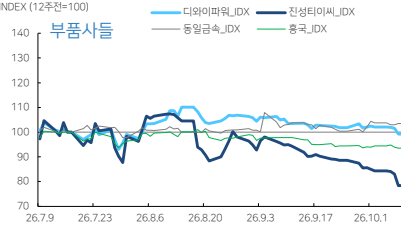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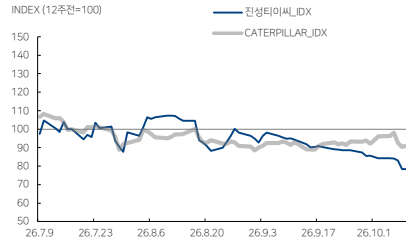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건기, C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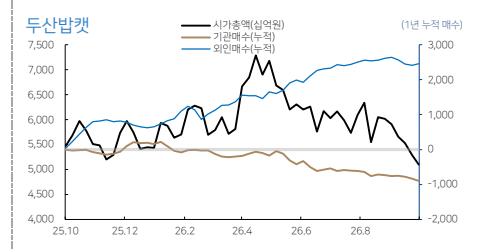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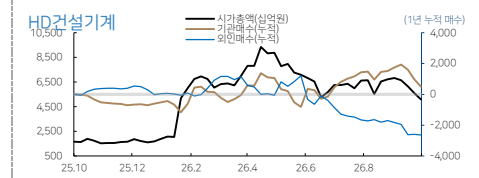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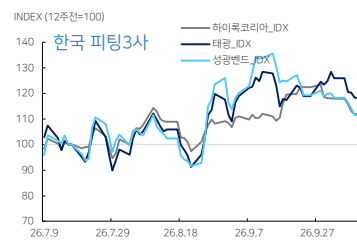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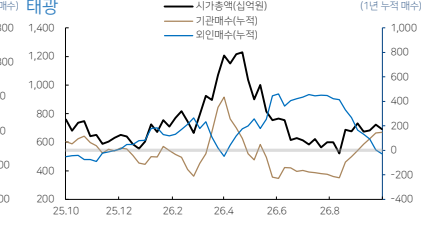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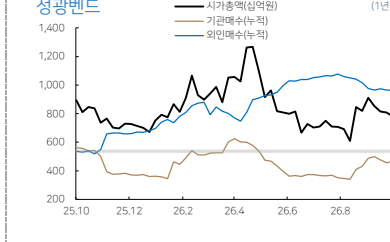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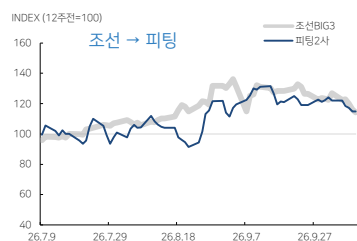
▶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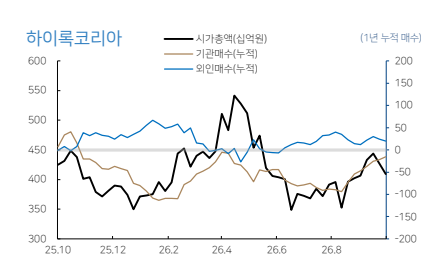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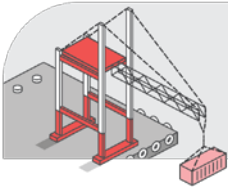


▶ 조선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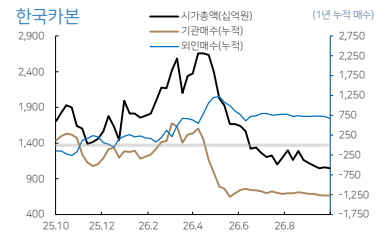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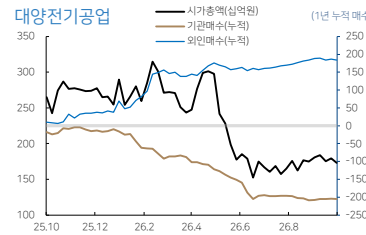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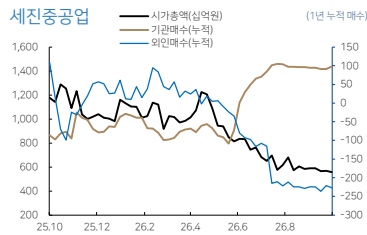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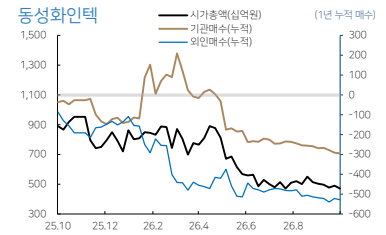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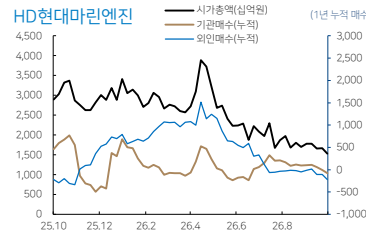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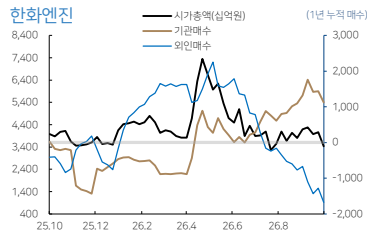


▶ 건설 → 피팅2사





조선기자재 수급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당사의 투자자의견 중 BUY는 "매수", HOLD는 "중립", SELL는 "매도"에 해당.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

▶ 투자등급 비율

BUY : 93.5% HOLD : 6.5% SELL : 0.0%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자의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